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57-14



2020년 연구보고서

#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개발 연구: 인지면접

2021. 4.



<http://kostat.go.kr/sri>



08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20-07

---

#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개발 연구: 인지면접

박주언 · 박선희 · 백선미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 발간사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SRI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겹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추진과정 .....	3
제2장 1차 인지면접 .....	4
제1절 연구방법 .....	4
제2절 연구결과 .....	11
제3장 2차 인지면접 .....	49
제1절 연구방법 .....	49
제2절 연구결과 .....	56
제4장 종합논의 .....	89
참고문헌 .....	96
Abstract .....	97

## 요 약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측정하고, 행복 수준에 기여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기획한 신규 조사로 향후 본격적인 조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예비조사(pilot survey)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2020년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계된 조사 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과정의 일환이다. 응답자 관점에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한 지 평가(evaluation)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응답자 대상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인지면접은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에 대한 응답과정과 이해도 등을 탐색하여, 응답자가 애매함을 느끼고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을 도출하였다. 2차 인지면접은 1차 인지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추가 및 변경된 문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질문 및 보기의 구성과 표현 등에 관한 제언사항을 모색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향후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와 조사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 행복, 주관적 웰빙, 조사표, 인지면접

# 제 1 장

##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행복(happiness)은 좋은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 부(wealth)를 넘어 사회적·심리적 부를 추구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 또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낮은 행복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 측정과 연구는 1980년대 중반 Diener가 측정 가능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Diener는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긍정 정서(positive affect)’, ‘부정 정서(negative affect)’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서은국 외, 2019). 이러한 주관적 웰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복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석틀(frame)이라 할 수 있다(조동훈, 2017).<sup>1)</sup> 주관적 웰빙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학술 연구뿐 아니라 OECD, UN 등의 국제기구와 영국, 캐나다 등의 개별 국가 단위에서 행복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sup>2)</sup>

행복의 측정은 OECD가 2013년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3)을 발간하면서 국제적인 표준이 수립되었다. OECD는 행복에 대해 축적된 학술 자료들과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의 조사사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표준적인 조사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주관적 웰빙은 ‘삶의 평가(life evaluation)’<sup>3)</sup>, ‘정서(affect)’뿐 아니라 삶의 의미나 목표 등을 반영하는 ‘유크 모니아(eudaimonia)’ 개념이 추가된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행복

- 1)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행복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해 정해식 등(2019)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행복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 2) 측정 사례에 따라 주관적 웰빙 개념에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와 함께 삶의 가치와 목표, 자율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하기도 한다(박주언, 심수진, 이희길, 2012).
- 3) ‘삶의 평가(life evaluation)’는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용어로 Diener가 사용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의 국제비교를 목표로 이러한 3가지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6가지 표준 문항 모듈<sup>4)</sup>을 제안한다. 아울러 행복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를 함께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구학적, 경제적(material conditions) 변수와 함께 삶의 질(예. 사회적 관계망, 건강상태 등)에 관한 변수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3).

한국은 현재 높은 경제적 조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행복에 관해 조사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삶의 만족도 단일 문항에 국한되고 정서와 행복 관련 사회심리적 변인(예. 신뢰, 사회 비교 등)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문항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서은국 외, 2019).

행복 측정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OECD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측정하고, 행복 수준에 기여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를 통해 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설계되었고 행복 측정 프레임과 조사문항이 도출되었다. 2020년에는 2019년 연구를 토대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구성하고 예비조사(pilot survey)<sup>5)</sup>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예비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계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일반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evaluation)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과정 및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2020년 예비조사 조사표의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향후 본격적인 조사 시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4)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6가지 국제 표준 문항 모듈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 웰빙의 3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대표 문항 집합인 ‘A. 핵심 지표(core measures)’ 모듈과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이 포함된 ‘B.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C. 정서(affect)’, ‘D.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 ‘E. 분야별 평가(domain evaluation)’, ‘F.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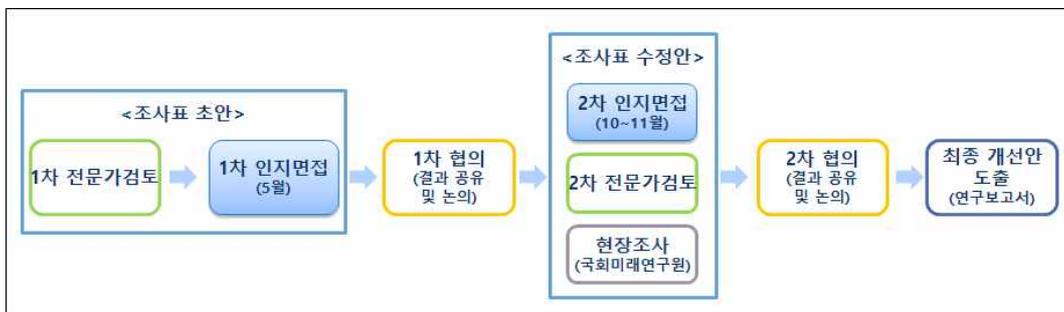
5)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년 10월~12월에 실시되었으며, 6,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제2절 연구 추진과정

이 연구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응답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조사문항 응답과정과 이해도를 확인하고, 질문 또는 보기의 구성이나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인지면접은 응답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과정과 이해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전체 연구 추진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연구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인지면접은 조사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인지면접은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0년 하반기 조사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것이다. 1차 인지면접은 사전에 조사표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여 인지면접에서 주목해서 검토할 지점을 파악한 후 시작하였다.<sup>6)</sup> 1차 인지면접에서는 일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초안 전반의 응답과정과 이해도를 탐색하였고, 응답특성과 제언사항을 도출하여 조사연구진과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2차 인지면접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차 인지면접 결과와 전문가 회의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조사표를 검토하였으며, 이 조사표는 2차 인지면접과 동 시기에 실시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사용된 것이다. 아울러 조사표 수정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2차 인지면접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검토를 진행하였다. 2차 인지면접에서는 1차 인지면접 후 변경된 문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언사항을 도출하여 조사연구진과 공유하였다. 두 차례 인지면접을 통해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과 수정안을 검토한 전반적인 과정과 최종 개선안을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과정

6) 전문가검토는 행복 주제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1차 인지면접 전 실시한 전문가검토에는 5명, 2차 인지면접과 동시에 진행한 전문가검토에는 9명이 참여하였다.

## 제 2 장

### 1차 인지면접

#### 제1절 연구방법

##### 1. 조사표 구성<sup>7)</sup>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하는 조사표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0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를 위해 마련한 조사표 초안이다.<sup>8)</sup>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의 조사원 면접조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7개 부문 총 121개<sup>9)</sup>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7개 부문은 이 조사의 목적인 행복 측정과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행복 측정은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 및 삶의 의미, 분야별 만족도 부문, 행복 결정요인 분석은 사회심리적 변인, 일상재구성, 개인 관련 사항 부문과 관련된다.

행복 측정 영역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사용하기 위해, OECD에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표준을 정리해놓은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3)의 권고에 따라 문항의 기본 틀이 구성되었다. 행복 부문은 OECD에서 제시한 주관적 웰빙의 3가지 핵심 요인인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 삶의 의미<sup>10)</sup> 각각을 측정하는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삶의 만족도, 정서 및 삶의 의미, 분야별 만

7) 조사표 구성은 서은국 등(2019)이 2019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의 4장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 설계’ 부분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8) 1차 인지면접은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에 비교문항을 추가하고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차 인지면접에서 다른 문항과 비교·검토하기 위해 추가한 문항은 총 4개로, 문3-1의 ‘(9) 행복’, 문4-4의 ‘(10) 가족생활’, 문D-24(전반적인 행복도(보통)), 문D-25(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보통))이다.

9) 1차 인지면접에서 추가한 비교문항 4개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10)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는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에 제시된 용어로 OECD 가이드라인 기준 각각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유데모니아(eudaimonia)’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행복 부문은 OECD 가이드라인의 ‘A. 핵심 지표’ 모듈을 기본으로 하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B. 삶의 평가’ 모듈의 ‘전반적인 행복도’ 문항을 사용한다.

족도 순서로 제시된 각 개별 부문은 해당 부문명에 관한 다양한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의 결정요인 영역은 행복 측정 영역에서 도출된 행복 측정치가 어떤 요인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심리적 변인 부문은 한국인의 행복 경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사회심리적 특성(예. 신뢰, 사회비교 등) 파악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사회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조사한다. 사회적 경험은 별개의 일상재구성 부문에서도 측정하며, 이 부문에서는 일상의 구체적인 행복 경험 형태를 일상재구성법(Daily Reconstruction Method)<sup>12)</sup>으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관련 사항 부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조사한다.

<표 2-1>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구성1)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2)</sup>
I. 행복	1-1 전반적인 행복도	
	1-2 하는 일의 가치	
	1-3 행복 경험	
	1-4 걱정 경험	
	1-5 우울 경험	
II. 삶의 만족도	2-1 캔트릴 사다리	
	2-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2-3 5년 전 삶의 만족도	
	2-4 5년 후 삶의 만족도	
	2-5 삶의 평가	5개
III. 정서 및 삶의 의미	3-1 정서 경험(즐거움, 차분함 등)	8개
	3-2 미소 또는 웃음 빈도	
	3-3 삶의 의미	3개
IV. 분야별 만족도	4-1 가족생활 만족도	
	4-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4-3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4-4 분야별 만족도(생활수준, 건강 등)	9개
	4-5 직업 만족도	

12) 일상재구성법은 실제 행복 경험 형태를 측정할 때 정서적 경험의 왜곡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각 개인이 실제 경험한 활동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지,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과 이루어지는지,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은국 외, 2019).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2)</sup>
V. 사회심리적 변인	5-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11개
	5-2 자원봉사활동 경험	
	5-3 기부 경험	
	5-4 집단 신뢰(가족(친척 포함), 이웃, 처음 만난 낯선 사람)	3개
	5-5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5-6 혼자/함께 있는 시간	2개
	5-7 좋아서 만나는/필요·의무 시간	2개
	5-8 사회적 관계망	3개
	5-9 사회 불평등 인식(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등)	6개
	5-10 성격(외향성, 신경증, 사회비교)	3개
VI. 일상재구성	6-1 기상/취침 시간	2개
	6-2 가장 중요한 일(개방형)	
	6-3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6-4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6-5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7개
개인 관련 사항	D-1 성별	
	D-2 출생연월	
	D-3 가구주와의 관계	
	D-4 혼인상태	
	D-5 동거 가족원/자녀 수	3개
	D-6 교육정도(본인, 부모)	
	D-7 경제활동상태	
	D-8 직업	
	D-9 취업자 외 주된 활동상태	
	D-10 종사상 지위	
	D-11 작업환경	5개
	D-12 직장 내 차별 경험	
	D-13 만 14~18세 가정 경제적 수준	
	D-14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D-15 가계 부채비율	
	D-16 경제적 어려움 경험	6개
	D-17 주거형태	
	D-18 주택유형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2)</sup>
	D-19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4개
	D-20 만성질환	
	D-21 장애	
	D-22 키와 몸무게	
	D-23 주관적인 체형 인식	

주: 1)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에 1차 인지면접에서 다른 문항과 비교·검토하기 위해 추가한 4개 문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가한 비교문항은 문3-1의 '(9) 행복', 문4-4의 '(10) 가족생활', 문D-24(전반적인 행복도(보통)), 문D-25(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보통))이다.  
 2) 해당 문항은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문항 수를 표시하였다.

## 2. 참가자

1차 인지면접 참가자는 통계청 홈페이지, 지역 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 생활정보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하였다. 모집공고에는 모집대상(만 20세 이상 성인), 면접기간 및 방법, 참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였다.<sup>13)</sup> 참가 신청 단계에서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등 주요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전질문을 제시<sup>14)</sup>하여 특정 성이나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1차 인지면접은 총 19명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3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6명, 30~40대 5명, 50대 이상이 8명이었다. 참가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4명, 나머지 15명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8명, 배우자 있음 8명, 이혼인 경우가 3명이었다. 참가자 구성과 세부적인 특성은 <표 2-2>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 1차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전체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혼인상태	
		남	여	20대	30~40대	5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미혼	유배우 <sup>1)</sup>
참가자 수	19	6	13	6	5	8	4	15	8	11

주: 1) 이혼 3명 포함

13) 지역 생활정보신문은 지면의 한계로 모집공고의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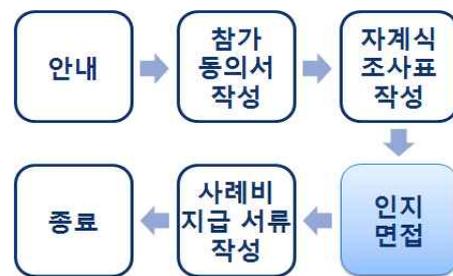
14) 사전질문은 참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메일로 신청하면 모집공고에 첨부된 '참가신청서'에 사전질문을 제시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접수원이 직접 질문하였다.

&lt;표 2-3&gt; 1차 인지면접 참가자 세부 특성

번호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1	남	38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유배우
2	남	25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3	여	53	고등학교	졸업	이혼
4	여	56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5	여	2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6	남	44	대학원 석사 과정	중퇴	미혼
7	여	2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8	여	48	대학(교)(4년제 미만)	중퇴	이혼
9	여	5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혼
10	남	50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11	남	63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	유배우
12	여	2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13	여	60	대학(교)(4년제 미만)	수료	유배우
14	남	27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미혼
15	여	50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16	여	29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17	여	38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18	여	45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19	여	57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 3. 수행과정

1차 인지면접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통계개발원 조사표연구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 후 면접원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림 2-1>). 참가자가 조사표연구센터에 도착하면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가동의서는 인지면접 진행과정이 녹화(녹음 포함)되고,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인지면접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t;그림 2-1&gt; 인지면접 수행과정

다음으로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작성하

도록 했다. 조사표는 일상재구성 부문 문6-2의 조사대상시간에 따라 ‘아침’, ‘정오’, ‘저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1번 참가자는 ‘아침’, 2번 참가자는 ‘정오’, 3번 참가자는 ‘저녁’ 그리고 4번 참가자는 다시 ‘아침’의 순서로 각 참가자에게 상이한 조사표 유형을 제시하였다.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 면접원이 참가자와 면담하는 인지면접을 진행했다. 인지면접은 면접원이 참가자에게 조사표에 응답한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캐어묻는 프로빙(prob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면접원은 사전에 준비한 프로빙 지침을 토대로 면담 중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응답과정과 응답내용을 상세히 묻고 참가자의 답변을 기록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과 면담을 포함한 인지면접 전체 수행과정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화(녹음 포함)되었다.

#### 4. 프로빙 지침

프로빙 지침은 조사표에서 인지적인 쟁점이 예상되는 지점을 참가자 간 공통된 질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이다. 1차 인지면접에 사용한 문항별 프로빙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인지면접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처음이므로 특정 부문이나 문항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조사표 전반에 대한 프로빙 질문을 마련하였다. 프로빙 지침은 질문과 보기, 척도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을 도출하였으며, 응답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등을 탐색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1차 인지면접 프로빙 지침

부문	문항	프로빙 질문
1. 행복	1-1 전반적인 행복도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척도 양극단('0', '10') 및 중간점('5') 의미 인식
	1-2 하는 일의 가치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하는 일' 표현 이해
	1-3 행복 경험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척도 양극단('0', '10') 및 중간점('5') 의미 인식 ○ 조사대상시간('어제') 인식
	1-4 걱정 경험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척도 양극단('0', '10') 및 중간점('5') 의미 인식 ○ 조사대상시간('어제') 인식
	1-5 우울 경험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조사대상시간('어제') 인식

부문	문항	프로빙 질문
II. 삶의 만족도	2-1 캔트릴 사다리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사다리' 개념 이해 ○ 조사대상기간('현재') 인식
	2-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 척도 양극단('0', '10') 및 중간점('5') 의미 인식 ○ 조사대상기간('최근') 인식
	2-3 5년 전 삶의 만족도	○ 조사대상기간('5년 전') 인식
	2-4 5년 후 삶의 만족도	○ 조사대상기간('5년 후') 인식
	2-5 삶의 평가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III. 정서 및 삶의 의미	3-1 정서 경험 (즐거움, 차분함 등)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척도 양극단('0', '10') 및 중간점('5') 의미 인식 ○ 문1-3 「⑩ 매우 행복했다」와 문3-1 「⑩ 온종일 느꼈다」 의미 인식 비교 ○ 조사대상기간('어제') 인식
	3-3 삶의 의미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문3-3 (1), (2) 이해 및 응답과정 - '하는 일' 표현 이해
IV. 분야별 만족도	4-1 가족생활 만족도	○ '가족생활' 표현 이해 ○ 「⑩ 비해당」 응답 이유
	4-4 분야별 만족도 (생활수준, 건강 등)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문4-4 (5), (6), (9) 이해 및 응답과정
	4-5 직업 만족도	○ 무응답 이유 ○ 응답대상자 포괄범위 인식
V. 사회심리적 변인	5-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5-5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 친구 수 산출과정 - '자주 어울리는 친구' 표현 이해
	5-6 혼자/함께 있는 시간	○ 혼자/함께 있는 시간 비율 산출과정 - '혼자/함께 있는 시간' 표현 이해 ○ 대중교통 이용 시간 분류
	5-7 좋아서 만나서/필요·의무 시간	○ 좋아서 만나서/필요·의무 시간 비율 산출과정 - '좋아서 만나서/필요·의무 시간' 표현 이해
VI. 일상 재구성	E1 기상/취침 시간	○ 기상/취침 시간 확인
	6-2 가장 중요한 일(개방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중요한 일' 선정 기준 ○ 조사대상시간('아침', '정오', '저녁') 내 일 여부
	6-3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6-2 활동 관련 보기 여부
	6-4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6-2 활동 관련 보기 여부
	6-5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 문6-2 활동에 대한 응답 여부
개인 관련 사항	D-5 동거 가족원/자녀 수	○ 가족원/성인 자녀/미성년 자녀 수 산출과정 - 응답한 가족원 및 자녀의 동거 여부
	D-12 직장 내 차별 경험	○ 해당 보기 선택 이유 ○ 무응답 이유
	D-15 가계 부채비율	○ 가계 부채비율 산출과정 - '가계 총 수입', '부채' 용어 이해
마무리	-	○ 궁금한 사항, 하고 싶은 말

## 제2절 연구결과

### 1. 삶의 만족도: 문1-1, 문2-1, 문2-2

삶의 만족도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중 행복 부분의 문1-1과 삶의 만족도 부분의 문2-1, 문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그 전에 각 문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문1-1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11점 척도로 조사한다. 문2-1은 0부터 10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고 꼭대기는 최상의 삶,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표시한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를 제시하고,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문2-2는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2-2>).

**1-1**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1**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보십시오.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10		최상의 삶
9		↑
8		
7		
6		
5		
4		
3		
2		
1		
0		↓ 최악의 삶

**2-2** 최근 귀하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2-2> 문1-1 전반적인 행복도(상), 문2-1 캔트릴 사다리(중), 문2-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하)

### 가. 문1-1, 문2-1, 문2-2: 문항 간 유사성 인식

문1-1, 문2-1, 문2-2에 대해 1차 인지면접 참가자 19명 중 9명은 질문이 서로 2개 이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면담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언급하였다. 문1-1, 문2-1, 문2-2 3개 문항이 모두 유사하다고 인식한 사례는 4명이고(참가자 1, 4, 14, 15), 문1-1과 문2-1은 1명(참가자 12), 문1-1과 문2-2는 2명(참가자 7, 10), 마지막으로 문2-1과 문2-2는 2명(참가자 9, 16)이 각각 2개 문항에 대해 유사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1: 문1-1, 문2-1, 문2-2 유사 인식)

참가자: (문2-2는?) 그게 **2-1번이랑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중략) **1-1하고도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만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참가자 7: 문1-1, 문2-2 유사 인식)

참가자: (문2-2는?) 이것도 저는 이제 **1-1번하고도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뭐 삶에 대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제 삶을 사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8로 했어요.

한편 문2-1은 제시된 캔트릴 사다리를 ‘경제적인 수준’과 같이 협의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문1-1과 문2-2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3, 8).

(참가자 3: 캔트릴 사다리를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식)

면접원: 경제적인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생각하셨나요? 이거 응답하실 때?

참가자: 아니요. 이걸 **경제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참가자 8: 캔트릴 사다리를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식)

참가자: 그러니까 우리 왜 여기 이제 최악의 삶, 최상의 삶하고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왜 **하류층, 중하류층, 중산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뉘었던 거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문1-1, 문2-1, 문2-2 세 문항은 질문과 척도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응답과정에서 유사하게 인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세 문항은 궁극적으로 행복의 구성 요소인 삶의 만족도 개념을 측정하는 공통점이 있다.<sup>15)</sup> 다만 유사하게 인식되는 문항들의 심층적인 측정내용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각 문항의 조사목적과 상호 관계, 결과 활용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 이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OECD(2013)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문2-2는 ‘A. 핵심 지표’ 모듈, 문1-1과 문2-1은 ‘B. 삶의 평가’ 모듈에 제시되어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1-1, 문2-1, 문2-2) 참가자 19명 중 9명은 질문 2개 이상 유사하게 인식함
- 문2-1은 캔트릴 사다리를 ‘경제적인 수준’의 협의적 개념으로 인식한 사례 있음

**나. 문1-1, 문2-2: 만족도 척도 인식**

문1-1과 문2-2는 행복을 정의하는 한 요소인 삶의 만족도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두 문항은 0부터 10까지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해 만족도가 상승하는 11점(0-10)의 단극성(unipolar) 척도를 사용한다.<sup>16)</sup> 각 척도의 양극단에는 해당 숫자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며, 문1-1은 0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10에는 「매우 행복하다」, 문2-2는 0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에는 「매우 만족한다」가 제시되어 있다.

1차 인지면접에서 문1-1과 문2-2에서 각각 척도의 구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척도의 좌측 극단인 숫자 0과 중간점인 숫자 5의 의미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 전반적으로 척도의 0은 매우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부정적인 상태로, 5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표 설계 단계에서 척도에 제시된 숫자에 부여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참가자 16: 문1-1 만족도 척도 0, 5 숫자 인식)

참가자: 0이라면 우울증? 뭔가 **우울증이 올 정도의 상태**가 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원: 우울증이 올 정도의 상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요.

참가자: 네.

면접원: 여기서 보시면 5가 있는데요. 5라면 좀 어떤 상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참가자: 음... 그냥 **평범**?

(참가자 19: 문1-1 만족도 척도 0, 5 숫자 인식)

참가자: (문1-1의 0은?) 자기 자신이 뭐 **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거나, 인정을 못 받았거나 아무래도 뭐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막 계속 그게 힘든 상황이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가족을 인해 뭐 슬프게 잃었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략) **아주 절망적인 거**. (문1-1의 5는?) 그냥 '나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16) 문2-1의 척도는 양극성(bipolar)으로, 중립적인 상태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상반된 두 가지 차원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0은 「최악은 삶」, 10은 「최상의 삶」이라는 라벨이 제시되어 있다.



## 2. 삶의 의미: 문1-2, 문3-3 (1)/(2)

이 조사표에서 삶의 의미에 관한 개념은 행복 부문의 문1-2와 정서 및 삶의 의미 부문의 문3-3을 통해 측정한다.<sup>19)</sup> 문1-2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 문3-3은 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그림 2-4>).

**1-2**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매우 가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3-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의미 있다고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2)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0	1	2	3	4	5	6	7	8	9	10

<그림 2-4> 문1-2 하는 일의 가치(상), 문3-3 삶의 의미(하)

### 가. 문1-2, 문3-3 (1)/(2): ‘하는 일’ 인식

문1-2와 문3-3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부문항은 모두 응답자 본인이 ‘하는 일’<sup>20)</sup>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다. 1차 인지면접에서는 이 문항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질문에 제시된 ‘하는 일’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애매하다는 언급이 있었다(참가자 5, 11). 한 참가자는 문1-2와 문3-3의 (1)/(2) 문항 모두 ‘하는 일’은 현재의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문3-3의 두 문항을 응답할 때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확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5) 다른 한

19) 이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OECD(2013)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되었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문1-2 원문)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문3-3 원문) (1) I generally feel that **what I do** in my life is **worthwhile**

(2) Most days I get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what I do**

20) ‘하는 일’ 표현의 원문은 문1-2은 ‘the things you do’, 문3-3 (1), (2)는 ‘what I do’이다.

참가자는 세 문항 모두 ‘하는 일’의 범위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활동, 특히 과거의 직업이 포함되는지 판단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참가자 11).

(참가자 5: 문3-3 (1)/(2) ‘하는 일’ 표현 애매)

참가자: 그런데 저는 이런 **1, 2번 같은 거를 다 직업적으로 관련해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는...**

(참가자 11: 문1-2 ‘하는 일’ 표현 애매)

참가자: 저는 지금은 현재 뭐, 어, 퇴직한 정년퇴직한 상태라 하는 일이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 왔던 일 또는 또 인제 뭐, 직업적인 일 아니라도 제가 어떤 뭐랄까 지금 활동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를 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하는 일이라는 요게 조금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하는 일이 **했던 일 포함하는 건지 지금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조금...

(참가자 11: 문3-3 (1)/(2) ‘하는 일’ 표현 애매)

참가자: ‘전반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뭐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애매하더라**, 제가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을 때하고는 많이 지금 다른 얘기가 돼서 아마 **좀 믹스가 되지 않았다**. 제가 답변할 때 이거 뭐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들이 이게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가** 지금 나 사실상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해 왔던 일하고, 지금 또 제가 뭐 크게 뭐 활동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것을 할 때는 그냥 그래 의미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이제 3번을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이거는 제 입장, **현재 제 생각을 쓴 거 같애**. 4번 체크한 거 보니까. **지금 나는 그냥 뭐 어려움이 없고 그렇지만 별로 이게 성취감을 느끼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요.

문1-2와 문3-3의 (1)/(2) 각 문항에서 ‘하는 일’ 표현의 애매함을 호소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살펴보았다. 참가자의 취업, 재학 등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은 현재 직업, 과거 직업, 집안일, 자녀양육, 학습, 취미, 봉사 등 다양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취업 경험이 생각의 차이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취업자는 ‘하는 일’의 의미를 현재 직업에 한정하거나(참가자 5, 6), 현재 직업과 함께 과거 직업이나 집안일 등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였다(참가자 1, 9, 10, 16, 19). 미취업자<sup>21)</sup>는 과거 직업에 한정하거나(참가자 13), 여러 가지 ‘하는 일’ 중 과거 직업을 포함하거나(참가자 4, 7, 8, 11, 12), 직업을 배제한 다른 내용(집안일, 학습 등)만 생각했다(6/19명).<sup>22)</sup>

21) 참가자 14와 15는 개인 관련 사항의 문D-7 응답 결과 지난 1주일 기준 경제활동자이나, 일회적 일이거나 무급가족일을 하여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관찰되어 여기서는 미취업자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표 2-5> 문1-2, 문3-3 (1), (2) '하는 일' 인식

참가자	참가자 상황		문1-2		문3-3 (1)		문3-3 (2)	
	경제 활동	재학	응답	'하는 일' 인식	응답	'하는 일' 인식	응답	'하는 일' 인식
5	○		5	현재 직업	7	현재 직업	6	현재 직업
6	○		2	현재 직업	1	현재 직업	1	현재 직업
16	○		8	현재 직업	6	현재 직업	8	현재 직업, 일상 활동(부모에게 밖에서 하는 행동 등)
10	○		7	현재 직업	8	현재 직업, 신앙, 취미, 동호회, 환경단체 등	7	현재 직업, 신앙, 취미, 동호회, 환경단체 등
9	○		6	현재 직업	4	현재 / 과거 직업	4	현재 / 과거 직업
1	○		8	현재 직업, 집안일(가장의 역할)	8	현재 직업, 집안일	7	현재 직업, 집안일
19	○		9	현재 / 과거 직업 집안일(요리, 청소 등)	9	현재 / 과거 직업 집안일(형제, 시댁 관계 등)	8	현재 / 과거 직업
14	○ <sup>1)</sup>	○	8	공부, 운동, 친구 만남, 가족/남 도움 등	9	가정 구성원, 학생, 공동체 구성원의 일 등	8	가정 구성원, 학생, 공동체 구성원의 일 등
15	○ <sup>1)</sup>		10	집안일(살림, 요리 등), 학습, 봉사	10	집안일(살림, 요리 등), 학습, 봉사	10	집안일(살림, 요리 등), 학습, 봉사
13			8	과거 직업	8	과거 직업	7	과거 직업
4			8	과거 직업, 집안일(가사), 문학회, 봉사	6	과거 직업, 집안일(가사), 문학회, 봉사	6	과거 직업, 집안일(가사), 문학회, 봉사
11			2 <sup>2)</sup>	과거 직업, 직업 외 활동	3	과거 직업, 직업 외 활동	4	직업 외 활동 (취미, 봉사 등)
8			5	과거 직업	5	일상 활동(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	7	과거 직업
12			3	집안일	3	과거 직업 (아르바이트), 집안일, 취미	4	과거 직업 (아르바이트)
7			8	일상 활동	6	일상 활동(먹고, 자고, 대화 등)	6	과거 직업(인턴)
2		○	3	학생의 일 (공부 등)	2	학생의 일(예.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스펙관리)	3	학생의 일(예.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스펙관리)
3			7	집안일, 자녀양육	5	집안일, 자녀양육	6	집안일, 자녀양육
17			9	자녀양육	5	자녀양육	2	자녀양육
18			6	집안일(가정주부의 일), 자녀양육	6	집안일(가정주부의 일), 자녀양육	5	집안일(가정주부의 일), 자녀양육

주: 1) 참가자 14는 일회적인 일, 참가자 15는 무급가족일로 일반적인 '직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참가자 11은 문1-2의 척도를 0은 '매우 가치 있다', 10은 '전혀 가치 없다'로 잘못 인식하여 면담과정에서 응답을 2에서 9로 정정하였다.

22) 참가자 2, 3, 14, 15, 17, 18

한편 동일한 참가자는 세 문항을 응답할 때 ‘하는 일’의 포괄범위를 유사하게 인식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각 문항 간 인식이 유사한 참가자는 11명이고, 나머지 8명<sup>23)</sup>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제시된 다른 표현(‘인생에서’, ‘성취감’ 등)이 동일한 참가자가 문항에 따라 ‘하는 일’을 달리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나. 문1-2, 문3-3 (1): ‘가치 있다’ 및 ‘의미 있다’ 인식

문1-2와 문3-3 (1)에는 각각 ‘가치 있다’와 ‘의미 있다’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문은 동일한 단어(worthwhile)로 되어 있다. 1차 인지면접 참가자 중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 표현을 각각 다른 의미로 이해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4, 17). 해당 참가자들은 문1-2에서는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문3-3 (1)에서는 ‘하는 일’은 유사하나 그 일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4: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 표현 이해 차이)

참가자: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 약간 객관적인 거죠.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런 거고. 여기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냐 그랬을 때는 어 아니죠 이거는 내 의미라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럴까 엄마로서 주부로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족도나 성취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일 자체로는 그런데 왜 인생으로 봤을 땐 그게 그러냐 이거죠.”

(참가자 17: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 표현 이해 차이)

참가자: 1-2번은 그냥 전반적으로니까 제가 생각하면 육아, 육아랑 이제 청소 이런 거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아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고. (중략)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전반적 의미가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솔직히 지금 반반이에요. 의미가 아기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저한테는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 다. 소결

1차 인지면접을 통해 문1-2와 문3-3 (1)/(2)에서 원문이 동일하고 조사표에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하는 일’이라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는 애매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로 생각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응답자가 각 문항별로 생각한 일이 서로 다를 가능성도 파악되었다. 아울러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는 원문은 동일하나 조사표에는 문항별로

23) 참가자 7, 8, 9, 10, 11, 12, 16, 19

표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 점이 응답자의 해석 차이를 유발하고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각 문항에서 ‘하는 일’과 ‘가치 있다’(문1-2), ‘의미 있다’(문3-3 (1)) 표현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장이 적절하지 검토가 요구된다. 문1-2와 문3-3 (1)/(2)는 전체적으로 OECD(2013)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원문의 목적과 개념을 구현하면서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문1-2와 문3-3 (1)은 원문의 문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중복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된다.

< 요약 및 제언 >

- (문1-2, 문3-3 (1)/(2)) 원문이 동일한 ‘하는 일’ 표현에 대해 응답자는 애매함을 느끼고, 동일 응답자가 각 문항별로 생각한 일이 다를 가능성 파악
- (문1-2, 문3-3 (1))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는 원문은 동일하나 조사표 표현은 다르고, 이 점이 응답자의 해석 차이를 유발하고 응답에 영향을 미친 사례 있음
- 각 문항이 원문의 의미를 구현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문1-2, 문3-3 (1)) 두 문항을 비교하여 유사 질문의 중복적인 조사 필요성 검토

### 3. 정서: 문1-3, 문3-1

정서에 관한 문항 중 행복 부분의 문1-3과 정서 및 삶의 의미 부분의 문3-1을 검토하였다. 문1-3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를 11점 척도(「⑩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⑩ 매우 행복했다」)로 조사한다. 문3-1은 매트릭스 디자인 형태로 8개의 정서를 제시하고 각각을 어제 얼마나 느꼈는지 11점 척도(「⑩ 전혀 느끼지 않았다」~「⑩ 온종일 느꼈다」)로 조사한다. 문3-1은 3개의 긍정 정서(즐거움, 차분함, 활력)와 5개의 부정 정서(슬픔, 분노, 스트레스, 피곤, 외로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5>). 여기서 ‘(9) 행복’은 1차 인지면접에서 다른 문항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조사표에 추가한 사항이다.

**1-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sup>24</sup>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1** 귀하는 어제 \_\_\_\_\_ 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										온종일 느꼈다
(1) 즐거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차분함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슬픔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분노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스트레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피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활력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외로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행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2-5> 문1-3 행복 경험(상), 문3-1 정서 경험(하)

### 가. 문1-3, 문3-1 (9): 문항 간 척도 인식

문1-3과 문3-1은 어제의 정서 경험을 11점 척도로 조사하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문1-3은 특정 정서를 경험한 정도(intensity), 문3-1은 특정 정서를 경험한 빈도(frequency)를 측정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척도의 우측 극단인 10점에 부여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문1-3에는 「⑩ 매우 행복했다」, 문3-1에는 「⑩ 온종일 느꼈다」가 제시되어 있다. 1차 인지면접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측정하는 속성이 다른 각 척도를 응답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문1-3을 정서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 문항으로 하고<sup>24</sup>, 이에 대응하여 빈도를 측정하는 문3-1에 ‘(9) 행복’을 세부문항으로 추가하여 1차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 인지면접에서는 문1-3의 「⑩ 매우 행복했다」와 문3-1 (9)의 「⑩ 온종일 느꼈다」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전체 참가자 19명 중 11명<sup>25</sup>은 각 문항의 라벨 간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머지 8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느낀 경우 각각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았다(<표 2-6>). 문1-3의 「⑩ 매우 행복했

24) 이 조사표에서 문1-3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복 부문의 문1-4(걱정)와 문1-5(우울)도 정서 경험의 정도를 측정한다. 한편 일상재구성 부문의 문6-5에서도 정서 경험의 정도를 조사하나, 어제 하루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한 가지 활동에 관한 질문으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후 일상재구성 부문에 관해 기술할 때 정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검토하였다.

25) 참가자 1, 4, 5, 7, 10, 11, 12, 13, 17, 18, 19

다」는 한 번 크게 행복한 경험을 했거나 하루를 평균했을 때 행복을 느낀 상태로, 따라서 응답자가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문3-1 (9)의 「⑩ 온종일 느꼈다」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행복함을 느낀 상태로 인식했다.

(참가자 5: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참가자: 음 약간 '온종일 느꼈다'는 뭔가 하루 종일 행복했던 일이 있어야 되는 거 같고, '매우 행복했다'는 그게 행복한 시간이 짧지만, 그 감정적으로 느낌? 짧은 시간이었던 라도 매우 행복했을 수 있는 느낌.

(참가자 11: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참가자: 그러니까 요거는 1-3에서는 그 사람이 한 번을 느꼈든, 잠깐을 느꼈든 요거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 같고 '매우 행복했다' 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온종일 느꼈다'.

(참가자 7: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참가자: 음 그 3-1에는 '온종일 느꼈다'가 있어가지고 온종일에 좀 그 온종일로 내가 상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나? 오늘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행복했나?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1-3은 그냥 어제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그 하루를 통째로 보고 그렇게 보고 만족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이 3-1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긴 했던 거 같아요. 그 '온종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짜 온종일 내가 행복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 같아요.

<표 2-6>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참가자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문1-3 「⑩ 매우 행복했다」	문3-1 (9) 「⑩ 온종일 느꼈다」
1	「⑩ 온종일 느꼈다」에 비해 정도가 낮게 느껴짐	24시간 느낀 상태, 매우 행복했어도 「⑩ 온종일 느꼈다」 선택 안함
4	「⑩ 온종일 느꼈다」에 비해 강도가 약하게 느껴짐	하루 종일 느낌, ing의 느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일 감정 반복 동일한 상황에서 「⑩ 매우 행복했다」와 비교해 「⑩ 온종일 느꼈다」 선택 꺼려짐
5	행복한 시간 짧았어도 「⑩ 매우 행복했다」 선택 가능	하루 종일 느낌
7	하루를 통째로 보고 만족도 생각	하루 종일 느낌, 24시간 계속 지속됨, 깨어있는 동안 계속 유지됨
10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행복하지 않아도 자기 전 하루가 행복했다 생각할 수 있음	하루 종일 느낌
11	강도 표현, 몇 번 느꼈는지 상관없음	하루 종일, 시간의 지속 표현

참가자	문1-3과 문3-1 (9) 척도 차이 인식	
	문1-3 「㉑ 매우 행복했다」	문3-1 (9) 「㉑ 온종일 느꼈다」
12	단발성, 하나의 큰 행복이 있어도 선택 가능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느낌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㉑ 온종일 느꼈다」 선택 못함
13	찰나, 순간	하루 종일 느낌, 하루 생활 속에 순간순간
17	어떤 시점, 사건이나 이벤트 발생했을 때 느낌(예. 선물 받는 순간 느낌)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느낌
18	한순간 짧게라도 크게 경험(예. 로또, 쇼핑) 한 시간이라도 즐거웠는지 묻는 느낌	하루 종일 느낌
19	단발성, 크게 한번 발생하여도 「㉑ 매우 행복했다」 선택 가능(예. 복권 당첨)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느낌

척도 차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3-1 (9)의 「㉑ 온종일 느꼈다」는 문1-3의 「㉑ 매우 행복했다」에 비해 개념 이해와 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참가자 6, 10, 12).

(참가자 6: 문3-1 (9) 「㉑ 온종일 느꼈다」 개념 어려움)

참가자: '온종일 느꼈다'는 부분 자체는 선뜻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복감 부분 자체는, 즐거움이든 뭐든 계속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일상생활에서는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니까 만약에 분노가 생겨도 계속 분노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가자 10: 문3-1 (9) 「㉑ 온종일 느꼈다」 개념 어려움)

참가자: 온종일 행복했다는 거보다는 그래도 행복감이 충분하고 되게 막 많이 행복했다는 거를 하면은 그게 더 맞는 질문으로는 이게 더 답하기가 편한 질문인데 온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느꼈다라는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참가자 12: 문3-1 (9) 「㉑ 온종일 느꼈다」 개념 어려움)

참가자: 감정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건데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온종일' 10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를 알 수가 없어서...

#### 나. 문1-3, 문3-1 (9): 응답결과 비교

1차 인지면접 참가자가 문1-3과 문3-1 (9)에 응답한 값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 참가자 19명 중 9명<sup>26)</sup>은 두 질문의 응답이 동일하고, 4명은 질문 간 응답이  $\pm 1$ 점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4, 6, 7, 14). 나머지 6명 중 5명은 두 질문 간 응답이  $\pm 2$ 점 이상 차이가 발생했는데 3가지 이유로 파악되었다.<sup>27)</sup> 첫째, 문3-1 (9)에 대한 응답

26) 참가자 2, 5, 10, 13, 15, 16, 17, 18, 19

은 문3-1의 (1)~(8)에서 부정적인 정서에 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의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 12). 둘째, 조사대상기간을 문1-3은 ‘어제’로 인식하고, 문3-1 (9)는 ‘평소’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3, 8). 마지막으로 문1-3의 ‘행복’은 문3-1 (1)의 ‘즐거움’에 근사한 개념으로 응답하고, 문3-1에서 (1) 문항의 ‘즐거움’과 (9) 문항의 ‘행복’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참가자 9).

#### 다. 소결

1차 인지면접에서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빈도 측정 문항을 각각 대표하는 문1-3(「㉑ 매우 행복했다」)과 문3-1 (9)(「㉑ 온종일 느꼈다」)의 각 척도에 대해 참가자 19명 중 11명은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또한 문3-1에 제시된 「㉑ 온종일 느꼈다」 표현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한 사례가 있었다. 동일한 사람이 문1-3과 문3-1 (9)를 응답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과정에서 특정 정서 경험은 정도를 측정하고, 다른 경우는 빈도를 측정하는 현재 조사표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하였다. 조사표에서 여러 가지 정서가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정도와 빈도로 측정 방식이 구분되는지 조사표 설계 단계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한 조사표 내에서 정서 경험을 상이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28)</sup> 이때 두 가지 측정 방식 중 어느 것이 최적인지, 채택한 방식의 라벨 표현은 적절한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 < 요약 및 제언 >

- 문1-3과 문3-1 (9)의 각 척도\*에 대해 참가자 19명 중 11명은 개념 차이를 인식하였고, 문3-1의 「㉑ 온종일 느꼈다」 표현은 이해를 어려워한 사례가 있으며, 전반적인 응답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

\* (문1-3 척도) 정도(intensity) 측정, (문3-1 척도) 빈도(frequency) 측정

- 현재 조사표에서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발생  
→ 정서가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정도와 빈도로 측정 방식이 구분되는지 조사표 설계 단계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정서 경험 측정 방식의 일원화를 고려할 수 있음

27) 6명 중 나머지 1명은 문3-1 (9)를 응답하지 않았다(참가자 11). 이 참가자는 문3-1은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조사하는 매트릭스 구조임을 이해 못하고 세부문항 하나((2) 차분함)만 응답하였다.

28) OECD(2013)는 정서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표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정서를 측정하는 여러 방식(빈도, 정도, 양자택일) 중 어느 것이 최적인지는 결론짓지 못했다.

## 4. 분야별 만족도

### 가. 문4-4 분야별 만족도

문4-4는 자신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분야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2-6>). 총 9개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분야는 생활수준, 건강, 성취한 것, 대인 관계, 안전감, 지역공동체, 미래의 안정성,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동네 환경이다.<sup>29)</sup>

4-4 귀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0	1	2	3	4	5	6	7	8	10
(2) 건강	0	1	2	3	4	5	6	7	8	10
(3) 성취한 것	0	1	2	3	4	5	6	7	8	10
(4) 대인 관계	0	1	2	3	4	5	6	7	8	10
(5) 안전감	0	1	2	3	4	5	6	7	8	10
(6) 지역공동체	0	1	2	3	4	5	6	7	8	10
(7) 미래의 안정성	0	1	2	3	4	5	6	7	8	10
(8)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0	1	2	3	4	5	6	7	8	10
(9) 동네 환경	0	1	2	3	4	5	6	7	8	10
(10) 가족생활	0	1	2	3	4	5	6	7	8	10

<그림 2-6> 문4-4 분야별 만족도

1차 인지면접 참가자에게 문4-4를 응답한 전반적인 소감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프로빙을 실시한 참가자 18명<sup>30)</sup> 중 ‘(6) 지역공동체’ 문항은 8명<sup>31)</sup>, ‘(5) 안전감’ 문항은 3명(참가자 6, 12, 16)이 개념을 이해하기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1) 생활수준’(참가자 17), ‘(2) 건강’(참가자 18), ‘(8)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참가자 7), ‘(9) 동네 환경’(참가자 13) 각 문항에 대해 애매함을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참가자 6: ‘(6) 지역공동체’ 애매)

참가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지역공동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무슨, 이제 지역 내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 인지 아니면 자기가 언제 어디에 소속돼서 뭘 활동을 봉사 단체라든지 하고 있는 거

29) 문4-4의 ‘(10) 가족생활’ 문항은 1차 인지면접에서 다른 문항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조사표에 추가한 사항이다.

30) 1차 인지면접 참가자 19명 중 한 명(참가자 3)은 해당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31) 참가자 5, 6, 8, 9, 13, 14, 16, 19

에 대한 질문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가자 9: '(6) 지역공동체' 애매)

참가자: 아니... 지역공동체 같은 거는 뭔 의미인가, 그거는 좀 헷갈렸어요.

(참가자 12: '(5) 안전감' 애매)

참가자: 음... 안전감? 약간 애매해서... 고민했었어요.

1차 인지면접 참가자가 주로 애매함을 느끼는 문항을 중심으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했는지 파악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역공동체'와 '안전감'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지역공동체'는 참가자에 따라 지역 기반 단체(예. 봉사단체 등) 참여 또는 단체의 활동(6명)<sup>32</sup>,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정책(복지 지원 등)(6명)<sup>33</sup>, 이웃(참가자 1, 2, 15, 16), 지역 사람(이웃 제외)(참가자 7) 등 다르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안전감'에 대해서도 범죄, 폭력, 사고 등 위협으로부터의 안전(8명)<sup>35</sup>, 가정의 안정(참가자 1, 2, 14, 18, 19), 고용안정(참가자 1), 경제적 안정(참가자 4, 6) 등으로 각각 다른 의미를 떠올리고 만족도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문4-4 (5), (6), (9) 문항의 개념 이해

참가자	(6) 지역공동체		(9) 동네 환경		(5) 안전감	
	응답	개념 이해	응답	개념 이해	응답	개념 이해
1	6	사는 곳 이웃과의 관계	6	동네 수준(문화편의시설 등)	7	고용안정, 가정의 평화
2	5	아파트 이웃과의 관계	4	아파트 소음, 쓰레기 냄새 등	7	본인 삶의 안전감(가정의 지지 등)
3 <sup>1)</sup>	3	-	3	-	3	-
4	6	정부, 지자체의 도움(지원)	6	거주 지역 환경(수목원, 도서관 등)	5	경제적, 사회적 지지
5	7	거주지 주변 환경(생활상권, 지역 혜택(공원 조성 등)), 지역 정책	9	이웃, 상권, 교통시설	8	거주지 주변 치안
6	1	* 모르겠음 <sup>2)</sup>	4	도시 생활환경	1	경제력, 전반적인 걱정하는 것 해결 가능성
7	5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 단체	6	거주지 주변 편의시설(음식점 등), 소음	7	본인 삶의 안전감(쫓기거나 폭력 여부 등)

32) 참가자 7, 8, 11, 17, 18, 19

33) 참가자 4, 5, 9, 10, 13, 14

34) '(6) 지역공동체'는 '(9) 동네 환경' 문항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환경'은 대체로 거주지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편의시설, 교통, 청결 등)으로 이해했다.

35) 참가자 5, 7, 9, 10, 11, 12, 13, 14

참가자	(6) 지역공동체		(9) 동네 환경		(5) 안전감	
	응답	개념 이해	응답	개념 이해	응답	개념 이해
8	0	지역 내 활동 참여	0	거주 주택 주변 미정비, 유흥시설(노래방, 주점)	2	대인관계
9	5	사회복지, 통장의 역할 (정보 전달, 지원 등)	5	거주지의 주거지로서의 환경(소음, 차량통행 등)	5	치안, 혼자 다니며 두렵지 않은 정도
10	4	지역 소속감 갖게 하는 참여 기회 또는 여건(동사무소 통장 모임 등)	9	거주지 산, 편의시설 등 살기 편한 정도	8	직업 업무 위험성, 도둑 걱정
11 <sup>3)</sup>	3	지역행사, 지역 내 취약자 도움 등	3	거주지 주변 환경 쾌적, 편리, 안전, 범죄취약	3	성폭행, 아동학대, 재난, 범죄로부터의 안전
12	1	국가 전체적 여성혐오, 여성 대상 범죄, 유리천장 등	7	거주지 범죄, 이웃 관계, 소음	6	불안, 치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안전
13	3	주민센터의 동아리, 봉사활동 등 참여	6	거주지 위생, 청결, 공해	7	개인적으로 삶을 아등바등 하는가, 사회적 치안, 교통
14	9	거주지(시 단위) 만족도 (친숙도, 소음, 자연재해, 지자체 서비스 등)	10	거주지(동 단위) 깨끗함, 편의시설 등	8	거주 안전감 주는 국가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개인적 안전감(가정 등)
15	9	아파트 이웃과의 관계	10	거주지 자연환경, 편의시설	9	집, 자동차 튼튼(물리적 측면)
16	5	이웃	8	주위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 깨끗함, 운동 가능한 공원 존재, 외국인 노동자 많이 없는가 등	5	* 모르겠음 <sup>2)</sup>
17	0	커뮤니티 소속감(참여, 도움 주고받음)	0	거주지 도로 차, 오토바이 난무, 아이 보행환경 불만족	1	주거환경(집이 더운지 습한지, 편안한지)
18	1	지역 내 활동 참여	9	편의시설(병원, 은행, 소풍물 등)	8	결혼, 자녀에 따른 안정
19	3	맘카페, 봉사단체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 행위에 대한 인식, 이미지	9	거주지 자연환경(산, 도심 밖 한적함), 공원 및 녹지조성	10	가족유대관계

주: 1) 참가자 3은 문4-4 문항별 개념 이해에 대한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문항별 개념 이해내용을 질문한 결과 참가자 6은 '(6) 지역공동체', 참가자 16은 '(5) 안전감'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3) 참가자 11은 척도를 0을 '매우 만족한다', 10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로 반대로 잘못 인식하여 면담과정에서 문4-4 (5), (6), (9)의 각 응답을 3에서 8로 정정하였다.

종합하면, '(6) 지역공동체'와 '(5) 안전감'과 같은 문4-4 세부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념의 애매함을 느끼거나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고 정확한 응답을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차 인지면접에서 애매함이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공동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4-4는 전

체적으로 OECD(2013)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원문의 목적과 개념을 구현하는 용어가 채택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OECD(2013)의 원문은 ‘feeling part of your community’이고, 이러한 원문에 적합하고 명료한 용어를 강구해야 한다. 국내의 유사한 조사와 연구에서는 동일한 원문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정해식 등, 2019), ‘지역사회의 일원임’(안주엽 등, 2015)으로 번역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주요기반으로 공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주민집단’으로 정의하였다(하현상 등, 2017).

< 요약 및 제언 >

- ‘(6) 지역공동체’와 ‘(5) 안전감’과 같은 문4-4의 세부문항에서 개념의 애매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참가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세부문항에 OECD(2013)가 권고한 원문의 목적과 개념을 구현하면서 쉽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나. 문4-5 직업 만족도

문4-5는 직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2-7>). 질문 서두에 제시된 ‘직업이 있는 분께만 여쭙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이 문항의 응답대상 여부를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림 2-7> 문4-5 직업 만족도

1차 인지면접 참가자 19명 중 13명은 자신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4-5를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3명은 조사표 후반부에 위치한 개인 관련 사항 부문의 취업자 조사 문항(문D-7)에서는 경제활동(일)<sup>36)</sup> 한 것으로 응답했다(참가자 14, 15, 19)(<표 2-8>).

36)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한 일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한 일

<표 2-8> 문4-5 무응답 중 문D-7 「① 예」 응답 사례

참가자	문4-5 (직업 만족도)	문D-7 (경제활 동상태)	문D-8(직업)	일의 내용		
				일의 내용	횟수	수입
참가자 14	무응답	① 예	① 기타(벽화작업, 장애인보조 <sup>1)</sup> )	지인 벽화 그리기 작업	1회	유급
				장애 있는 친척 돌봄	일시적	무급
참가자 15	무응답	① 예	⑥ 농림어업종사자	가족 간 소규모 감, 매실 재배	-	무급
참가자 19	무응답	① 예	⑤ 판매종사자	파트타임(시간제) 판매 일	비정기· 지속적	유급

주: 1) 참가자 14가 문D-8에 기입한 2가지 일 중 '장애인보조'는 프로빙 결과 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참가자들은 직업의 종류를 조사하는 문D-8의 응답내용에 관한 프로빙에서 각각 지난 1주일 동안 발생한 1회적인 일(참가자 14), 가족 간 소규모 감, 매실 재배(참가자 15), 비정기적인 파트타임(시간제) 일(참가자 19)을 했다고 답변했다. 문4-5에서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은 일이 이후 문D-7(경제활동상태)의 일과 문D-8(직업)의 직업의 범위에는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문4-5에서 응답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인 ‘직업’은 무엇인가? 조사에서는 문D-7의 경제활동(일)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문4-5에서 문D-7 응답과 상이한 사례(참가자 14, 15, 19)는 오류가 된다. 이와 같이 문D-7의 경제활동(일)은 1회성 일, 무급가족 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직업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문4-5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응답자에 따라 직업의 범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응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4-5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직업의 정의를 조사표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응답자가 이 문항의 응답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모호함을 줄이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요약 및 제언 >

- 문4-5는 무응답하고, 문D-7(경제활동상태)에서는 일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 있음  
조사에서 직업은 문D-7과 같이 광의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응답자 인식과 괴리  
→ 문4-5에 직업의 정의를 조사표에 명시 고려

문4-5 응답자(5명)<sup>37)</sup>를 대상으로 질문의 ‘자신의 일’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

37) 문4-5 응답자는 총 6명이나, 참가자는 6은 ‘자신의 일’ 인식에 관한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했는지 확인하였다.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었는데, ‘하는 일(업무)’(참가자 5, 16)에 한정하거나, 일(업무)뿐만 아니라 동료 관계, 복지, 근무환경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일자리’(참가자 1, 9, 10)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4-5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 개념을 응답자 간 포괄범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문4-5는 직업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동에 관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직업이 없는 응답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동지시문을 추가하거나, <그림 2-8>과 같이 직업이 없는 경우 만족도 척도와 별개로 선택할 수 있는 보기(「⑩ 비해당」)를 제시<sup>38)</sup>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1 귀하는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비해당(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그림 2-8> 문4-1 가족생활 만족도: 「⑩ 비해당」 보기 제시 사례

< 요약 및 제언 >

- ‘자신의 일’ 개념을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함  
→ 문4-5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 개념을 응답자 간 포괄범위 차이가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직업 없는 응답자는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임

## 5. 사회심리적 변인

### 가. 문5-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문5-1은 사회에 대한 태도(전반적 신뢰 등)와 심리적 특성(물질주의, 행복에 대한 믿음 등)을 측정하는 11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2-9>).

38) 분야별 만족도 부문의 문4-1, 문4-2, 문4-3 3개 문항은 「⑩ 비해당」 보기를 사용한 사례이다.

5-1 다음은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많은 돈과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남보다 뒤처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 2-9> 문5-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1차 인지면접에서는 문5-1의 일부 문항은 조사 이유가 의문스럽고, 조사내용이 민감하여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응답하기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참가자 4, 5, 7, 10, 13, 14, 17)(<표 2-9>). ‘(5)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문항과 ‘(11)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합하다.’ 문항에 대해 위와 같은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표 2-9> 문5-1 세부문항별 인식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의견 제시
의문					○				○		○	참가자 4, 7
민감					○	○					○	참가자 5, 17
애매	○	○	○	○	○	○	○	○	○	○	○	참가자 10, 13, 14 <sup>1)</sup>

주: 1) 참가자 14는 문5-1의 세부문항((1)~(11))이 전체적으로 생소하여 응답하기 애매하다고 하였다.

(참가자 7: (5), (11) 문항 의문 의견)

참가자: 음. 응답하는 건 어렵진 않았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문장이 뭘 의미할까? 동성애를 찬성한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물어볼까? 또 뭐 11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생리적인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가?

(참가자 5: (5) 문항 민감 의견)

참가자: 어, 약간 5번이 요즘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문제여서, 만약에 당사자가 이걸 봤으면 뭐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가자 10: (5) 문항 애매 의견)

참가자: **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번에 동성애자를 물어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답하기가 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 가깝게 막 그런 것들을 보거나 뭐,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다면 더 대답하기가 편했겠죠.

(참가자 14: (1)~(11) 애매 의견)

참가자: 뭐 **1번도 좀 애매했고 이런 질문을 처음 봐서. 3번? 3번도 약간... 네 생각을 좀 해 보게 된 거 같아요. 5번도 그렇구요.**

면접원: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같고.

참가자: 네. 대체적으로 **11번까지 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 나. 문5-5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문5-5는 응답자가 평소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조사한다(<그림 2-10>). 1차 인지면접 참가자 중 친구 수를 구간(2~6명)으로 기입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2). 이 참가자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범위에 비대면으로 연락하는 관계(SNS, 카카오톡 등)가 포함되는지 헷갈린다고 언급하며, 대면 기준이면 2명이고 비대면 관계를 포함하면 6명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면담과정에서 정수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자 최종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어울리는 친구를 포함한 수(6명)로 정정하였다.

5-5	귀하는 평소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명	

<그림 2-10> 문5-5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참가자 12: 친구 수 응답기준 애매함 언급)

면접원: 5-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명에서 여섯 명으로 적어 주셨네요.

참가자: 이거를 그 **직접 만나는 친구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하는 친구도 포함해도 되는지 헷갈려 가지고, 포함하면 여섯 명, 포함하지 않으면 두 명 정도로.**

면접원: 자주 만나는, 실제로 만나는 친구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두세 명 정도 되고, 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 주고받는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참가자: 계속 주고받는... 여섯 명.

면접원: 만약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참가자: 어... 그 연락까지 포함한 거요.

면접원: 여섯 명으로 생각이 드세요?

참가자: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나이를

먹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친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

면접원: 주로 이제 뭐 카톡이나 SNS 이런 거 포함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가자: 네, 맞아요.

이 사례를 통해 질문에 제시된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정의가 모호하고 응답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사표에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범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지면접에서 애매함이 제기된 비대면 관계의 포함 여부 등을 포괄하여 ‘자주 어울리는 친구’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응답기준을 응답자가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조사표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동 조사표 일상재구성 부문의 문6-4에서 지침을 제시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한 사람을 조사하고 ‘(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 포함)’이라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 요약 및 제언 >

-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범위에 비대면 관계(SNS, 카카오톡 등)가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사례 있음
    - ‘자주 어울리는 친구’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기준을 정립하고,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 \* (참고) 문6-4 함께한 사람: ‘(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 포함)’ 지침 제시

다. 문5-6 혼자/함께 있는 시간

문5-6은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을 100%로 하고,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평균적인 비율을 조사한다. 주중(월~금)과 주말(토~일)을 구분하여 각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2-11>).

<b>5-6</b>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을 100%라고 한다면,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총합 = 100%)	
	주중(월~금)	주말(토~일)
(1) 혼자 있는 시간	(        )%	(        )%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        )%	(        )%
총합	100%	100%

<그림 2-11> 문5-6 혼자/함께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여 각 비율을 산출했는지 검토하였다. 1차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주로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외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sup>39)</sup>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참가자는 집 안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 전체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였다(참가자 3, 8). 해당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한 식사뿐만 아니라 각자의 방에 있는 경우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포함시켰

<표 2-10> 문5-6 응답내용 및 포함 시간 내용

참가자	(1) 혼자 있는 시간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주중 (%)	주말 (%)	포함 시간 내용	대중교통	주중 (%)	주말 (%)	포함 시간 내용	대중교통
1	10	5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대화하지 않는 시간		90	95	주변에 다른 사람(직장 동료, 가족 등)이 있어 활동제한 있는 시간	○
2	100	80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듣는 시간	○	0	20	친구 만나는 시간	
3 <sup>1)</sup>	10	90	시장, 운동가는 시간	- <sup>2)</sup>	100	100	집에 재녀와 있는 시간	- <sup>2)</sup>
4	60	10	내 시간을 뺏지 않는 시간	○	40	90	내 시간을 뺏는 시간(전화통화 포함)	
5	50	80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1인 가구)	○	50	20	직장, 친구 만남 시간	
6	60	20	집에 독립된 방에 혼자 있는 시간		40	80	가족 식사, 직장알하는 시간	○
7	90	90	주위에 아무도 없는 시간(1인 가구)	○	10	10	-	
8	60	0	재녀 없는 시간	○	40	100	재녀 있는 시간	
9	30	50	집에 있는 시간	○	70	50	밖(직장 등)에 있는 시간	
10	20	10	혼자 산책, 운동, 독서 등 시간	○	80	90	직장, 식당에서 보낸 시간	
11	80	80	혼자, 배우자와 있는 시간	○	20	20	배우자 외 타인과 보낸 시간	
12	90	90	-	○	10	10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	
13	90	80	혼자, 배우자와 있는 시간	○	10	20	배우자 외 타인과 보낸 시간	
14	20	5	혼자 공부, 운전, 차 마시는 시간	○	80	35	-	
15	70	90	배우자 직장, 재녀 학교 간 시간		30	10	-	○
16	90	70	집과 회사에서 대화 없는 시간	○	10	30	-	
17 <sup>1)</sup>	95	5	본인과 어린 재녀만 있는 시간	○	80	20	배우자, 부모, 친구, 교회 사람과 보낸 시간	
18	90	10	본인과 어린 재녀만 있는 시간	○	10	90	배우자, 여동생 등과 보낸 시간	
19	60	30	무엇을 혼자 오롯이 하는 시간	○	40	70	집에서 가족과 식사, 친구 만남, 대화하는 시간	

주: 1) 참가자 3과 17은 각 시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참가자 3은 대중교통 이용시간 분류에 관한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했다.

39) 주중과 주말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비율 구성은 차이가 있으나, 각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반면 어린 자녀(참가자 17, 18)나 배우자(참가자 11, 13)와 같이 있는 시간은 상호 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혼자 있는 시간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었다.

(참가자 18: 어린 자녀와의 시간 전체 = 혼자 있는 시간)

참가자: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은 이제 애기는 항상 있지만, 애기가 아직 이렇게 막 유치하게 말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니 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신랑 퇴근 시간도 늦고 하니까 거의 차지를 하는 거고 주말에는 그래도 이제 신랑이 집에 있으니까 뭐 여동생들도 오고 친정 식구들도 오고, 저도 시댁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 13: 배우자와의 시간 전체 = 혼자 있는 시간)

참가자: 이거는 이제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혼자 있는 게 맞죠. 혼자 있고 가끔 이제 필요할 때만 친구.

면접원: 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위에 배우자 분은 계셨던 건가요?

참가자: 그렇죠. 항상 같이 있잖아요. (중략) 아, 시간 구분은, 밖에 나갈 때는 거의 개인적인 볼 일 아니면 같이 다녔어요. 같이 쇼핑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면접원: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과 보낸 시간이라고 구분하지 않으신?

참가자: 네. 그렇죠. 그냥 부부니까 그냥.

한 참가자는 비대면의 전화통화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포함시켰다(참가자 4). 이 참가자는 응답과정에서 전화통화 시간 분류를 고민하고 조사표의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문항 옆에 ‘(전화통화 시간 포함)’이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에 착안하여 참가자 5부터 12까지 가상의 전화통화 상황을 제시하고 시간 분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8명 중 5명(참가자 6, 7, 8, 10, 12)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2명(참가자 5, 11)은 혼자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명(참가자 9)은 전화통화 내용의 종류(공적, 사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한편 면담 과정에서 가상의 대중교통 이용 상황을 제시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는 같은 공간에 다수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간에 대해 참가자 18명<sup>40)</sup> 중 15명은 혼자 있는 시간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답변한 사람은 3명이었다(참가자 1, 6, 15).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대체로 유사한 기준으로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나, 일부 다른 기준

40) 참가자 19명 중 한 명(참가자 3)은 문5-6에서 대중교통 이용시간 분류에 관한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으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각 시간을 자의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사표에는 시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이나 단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조사와 결과 활용성 측면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시간 분류 기준을 응답자 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41)</sup>

< 요약 및 제언 >

- 참가자 간 대체로 유사한 기준으로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나, 일부 다른 사례가 확인됨  
 →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라. 문5-7 좋아서 만나는/필요·의무 시간**

문5-7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 ‘(1) 좋아서 만나는 관계’와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각각에 들이는 시간의 비율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조사한다(<그림 2-12>). 이 질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앞서 문5-6에서 조사한 ‘(1) 혼자 있는 시간’ 이 외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sup>42)</sup> 질문에는 각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으며, 좋아서 만나는 관계는 친구,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는 인맥이 제시되어 있다.

<b>5-7</b>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 (1) 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예. 친구)와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예. 인맥) 각각에 들이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합 = 100%)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좋아서 만나는 관계	(     )%	(     )%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     )%	(     )%
총합	100%	100%

<그림 2-12> 문5-7 좋아서 만나는/필요·의무 시간

41) 통계청이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함께한 사람’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같이 있던 사람(단, 불특정 다수인 군중 또는 모르는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사표에 명시해 놓았다(통계청, 2019).

42) 문5-6과의 연관성이 조사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흐름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다.

문5-6과 마찬가지로 좋아서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에 들이는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여 각 비율을 산출했는지 검토하였다. 1차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주로 직장, 학교(예. 조별과제), 일부 가족(예. 육아, 부모 돌봄, 시부모 방문)이나 친구(예. 단체 모임), 기타 일상생활(예. 은행 방문) 등을 통한 관계를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5-7의 응답내용이 문5-6의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2가지 사례가 있었다. 한 사례는 문5-6에서 주중 혼자 있는 시간이 100%,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0%로, 문5-7은 주중에 관해 응답할 수 없는 구조이나 응답한 것이다(참가자 2).<sup>43)</sup> 다른 사례는 시점에 관한 것으로, 문5-6에서는 직장을 그만 둔 요즘<sup>44)</sup>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고, 문5-7은 직장을 다니던 과거 시점으로 응답한 것이다(참가자 8).

(참가자 2)

문5-6 주중 (1) 100%, (2) 0% / 주말 (1) 80%, (2) 20%

문5-7 주중 (1) 0%, (2) 100% / 주말 (1) 10%, (2) 90%

(참가자 8)

문5-6 주중 (1) 60%, (2) 40% / 주말 (1) 0%, (2) 100% → 직장 그만둔 **요즘** 기준

문5-7 주중 (1) 0%, (2) 100% / 주말 (1) 30%, (2) 70% → 직장 다니던 **과거** 기준

현재 조사표에는 문5-7과 문5-6과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응답자가 조사 흐름에 비추어 추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차 인지면접 사례와 같이 비율 분포나 시점 등의 측면에서 두 문항 간 비논리적인 응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5-7은 이전 문항인 문5-6의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조사 구조를 유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43) 이 사례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문5-6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0%일 때, 문5-7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냐는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문5-7을 공란으로 두는지, 좋아서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각각에 0%를 기재하면 되는지 등이 모호하다. 각각 0% 기재 시 총합이 이미 100%로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44) 이 참가자는 1차 인지면접에 참가하기 약 3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쉬고 있는 상태이다.

**< 요약 및 제언 >**

- 문5-7의 응답내용이 문5-6의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사례 있음
- 문5-7은 이전 문항인 문5-6의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조사 구조임을 주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6. 일상재구성**

일상재구성 부문은 응답자가 어제 한 일에 대해 조사하는 5개 문항(문6-1~5)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3>). 이 부문은 문6-2에서 응답한 내용이 이후 3개 질문(문6-3~5)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구조이므로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문6-1은 한 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24시간제로 기입하도록 한다. 다음 문6-2는 어제 특정 시간에 한 일 중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하게 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때 특정 시간은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과 같은 3개 유형으로, 응답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특정 시간이 상이한 조사표를 제공한다.

문6-3부터 문6-5는 문6-2와 연관된 문항들로 문6-2에서 응답한 중요한 일을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문6-3은 일하기, 아이 돌보기, 걷기 등 23개의 대표적인 행동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문6-2에 기술한 중요한 일에 대응되는 보기 1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어서 문6-4는 문6-2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는지 조사하며, 함께한 사람으로 혼자, 배우자, 친구 등 7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6-5는 문6-2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정도를 측정하며, 근심, 바쁨, 즐거움 등 7개 감정 각각에 관해 3점 척도로 조사한다.

**6-1** 지금부터는 귀하가 어제 하신 일들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1) 귀하가 어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시	분
(2) 귀하가 어제 밤에 잠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시	분

**6-2** 귀하가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까지 하신 일 중,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빈 칸에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해 주십시오.

기술: \_\_\_\_\_

**6-3** 위에 언급하신 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일하기	⑧ 자가용/버스/기차로 이동	⑰ 산책 외 여가 활동하기
② 음식 준비하기	⑨ 휴식(차/커피 마시기 포함)	⑱ 몸단장 혹은 샤워하기
③ 집안일 하기	⑩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⑲ 먹기
④ 농사	⑪ 놀이(카드/게임 포함)	⑳ 종교 활동하기
⑤ 아이 돌보기	⑫ 독서하기	㉑ 누군가를 돌보기
⑥ 쇼핑하기	⑬ 라디오 청취하기	㉒ 애정표현/성관계
⑦ 걷기	⑭ TV 시청하기	㉓ 잠자기
⑧ 자전거로 이동	⑮ 운동 혹은 산책하기	

**6-4** 귀하는 위의 활동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습니까?  
(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 포함)

① 혼자	⑥ 친구
② 배우자	⑦ 직장 동료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⑧ 그 외 다른 사람
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6-5** 위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의 감정을 각각 얼마나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1) 근심	①	②	③
(2) 바쁨	①	②	③
(3) 짜증 혹은 분노	①	②	③
(4) 우울	①	②	③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①	②	③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①	②	③
(7) 즐거움	①	②	③

<그림 2-13> 문6-1~5 일상재구성 부문 문항

가. 문6-2~5

1차 인지면접 결과 문6-2는 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기술하고, 문6-3부터 문6-5는 문6-2의 중요한 일<sup>45)</sup>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였다(<표 2-11>).

<표 2-11> 문6-2~5 응답기준 위배 사례

참가자	문6-2 유형 <sup>1)</sup>	문6-1				문6-2 중요한 일(주관식)	문6-3 중요한 일(객관식)	문6-4 함께한 사람	문6-5 감정
		(1) 기상		(2) 취침					
		시	분	시	분				
3	저녁	05	50	23	30	-	음식 준비하기, 집안 일 하기, 걷기, 휴식(차/커피마시기 포함), TV 시청하기, 몸단장 혹은 샤워하기, 잠자기	혼자, 성인 자녀, 그 외 사람	어제 하루
4	아침	7	-	23	10	친정에 가서 반찬을 해드리고 청소를 했다. 아침과 점심을 차려드렸다.	음식 준비하기, 집안 일 하기, 먹기, 누군가를 돌보기	가족 <sup>2)</sup>	어제 아침
6	저녁	06	30	11 <sup>3)</sup>	30	알바 귀가 후 마트 장본 후 부모님과 함께 식사	음식 준비하기	가족 <sup>2)</sup>	
7	아침	11	00	1	0	씻고 첫 끼를 해 먹었다	몸단장 혹은 샤워하기	혼자	
8	정오	05	00	23	30	아르바이트 구직란 본 것	일하기	친구	
10	아침	05	30	21	30	오전 파트타임 업무수행(AM 7:50~11:30)	일하기	직장 동료	최근
11	정오	06	00	09 <sup>3)</sup>	30	등산, 인문교양 유튜브 시청	산책 외 여가 활동하기	배우자	
16	아침	10	00	23	00	엄마와 데이트. 마트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것을 사먹음	쇼핑하기	가족 <sup>2)</sup>	
18	저녁	07	40	24	30	아기 저녁먹이기, 목욕하기, 신랑 퇴근 후 하루 일과 이야기 나누기	집안일 하기	가족 <sup>2)</sup>	어제 저녁

주: 1) 문6-2부터 문6-5까지 4개 질문은 응답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서로 다른 어제 특정 시간에 대해 질문한다. 3개 그룹은 조사대상 특정 시간에 따라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 유형으로 구분한다.

2) 「㉔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의미한다.

3) 참가자 6과 참가자 11은 12시간 기준으로 취침시간을 응답한 사례이다.

45) 1차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문6-2에서 '중요한 일'은 주로 목적이 분명하거나(예. 직장 업무, 과제하기, 산책하기), 인상적(예. 엄마와 데이트), 의미를 부여하는 일(예. 가족 아침식사 준비)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첫째, 문6-2와 문6-3에 어제 하루(참가자 3) 또는 조사대상 특정 시간(참가자 4, 18)에 한 모든 활동을 응답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후 문항(문6-4, 문6-5)을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sup>46)</sup> 둘째, 문6-2에 조사대상 시간에 발생한 2개 이상의 활동을 기술하였으며, 문6-3은 문6-2 기술 내용 중 1개 활동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6, 7, 11, 16).<sup>47)</sup>

세 번째 사례는 문6-4에서 문6-2에 기술한 활동을 조사대상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함께한 사람으로 응답한 것이다(참가자 8). 이 참가자는 ‘어제’의 경우 문6-2에 기술한 활동을 혼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사례는 문6-5에서 ‘최근’에 문6-2 활동을 하면서 느낀 평균적인 감정을 응답한 것으로, ‘어제’ 기준이면 문6-5의 일부 응답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참가자 10).

#### < 요약 및 제언 >

- 문6-2~5에서 문6-2는 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기술하고 문6-3부터 문6-5는 문6-2의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함
- 문6-2~5는 연관된 문항으로 공통된 응답기준(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의 중요한 일 한 가지)을 준수하도록 강조할 필요 있음

#### 나. 문6-3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문6-3은 일하기, 아이 돌보기, 걷기 등 23개의 대표적인 행동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문6-2에 기술한 중요한 일에 대응되는 보기 1개를 선택하도록 한다(<그림 2-13>). 1차 인지면접 참가자 중 문6-2 활동에 대응되는 보기가 없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2, 5)(<표 2-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자 2는 문6-2에 리포트 작성을 의미하는 ‘과제하기’를 기술하고 문6-3은 「㉓ 독서하기」를 응답했는데, ‘공부하기’ 보기가 없고 「㉑ 일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5는 문6-2는 ‘엄마에게 선물해드린 일’, 문6-3은 「㉑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를 선택했는데, 문6-3에 적합한 보기가 없고 해당 행동 중 대화가 동반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6) 이때 참가자 3은 문6-2에는 활동을 기술하지 않고 문6-3에 하루 동안 한 7개 행동 보기를 선택하고, 참가자 18은 문6-2에 기술한 2개 이상의 활동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보기 1개(「㉓ 집안일 하기」)를 선택하였다.

47) 다만 참가자 6이 문6-2에 기술한 내용(알바 귀가 후 마트 장본 후 부모님과 함께 식사)에는 문6-3에서 응답한 음식 준비하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면담과정에서 장보기와 식사라는 활동에 음식 준비가 내포된 것으로 생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12> 문6-3 유사 활동 보기 선택 사례

참가자	문6-2 유형 <sup>1)</sup>	문6-1				문6-2 중요한 일(주관식)	문6-3 중요한 일(객관식)	문6-4 함께한 사람	문6-5 감정
		(1) 기상		(2) 취침					
		시	분	시	분				
2	정오	7	00	24	00	과제하기	독서하기	혼자	
5	정오	7	05	22	30	엄마에게 선물해드린 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가족 <sup>2)</sup>	

주: 1) 문6-2부터 문6-5까지 4개 질문은 응답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서로 다른 어제 특정 시간에 대해 질문한다. 3개 그룹은 조사대상 특정 시간에 따라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 유형으로 구분한다.  
 2) 「5」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의미한다.

(참가자 2: 문6-2 '과제하기' / 문6-3 「13」 독서하기)

참가자: 다른 거를 그 체크하려고 했는데, 뭐 '공부하기'가 있으면 체크하려고 했는데 없는 거 같아서 일하기도 뭔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독서 그나마 비슷한 거 같아서 체크를 했는데 이것도 음... 딱히 없어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면접원: 그러면 혹시 '과제하기'가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이었나요?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었나요? 아니면...

참가자: 검색을 하고 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면접원: 아, 레포트를 작성하는 일인가요?

참가자: 네, 레포트 제출이에요.

면접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가까운 게 없어서...

참가자: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애매한 거 같아서요. '일하기'를 고를까 말까 하다가 안 골랐어요.

(참가자 5: 문6-2 '엄마에게 선물해드린 일' / 문6-3 「11」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참가자: 약간 이런 선물을 드리는 행동이 없어 가지고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되니까... 11번을 했어요.

현재 문6-3에는 23개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인지면접 사례와 같이 누락된 행동이 있고, 일부 보기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문6-3의 보기는 문6-2에 기술할 수 있는 활동을 누락하지 않고 대응 가능하며, 보기 간 포괄범위 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6-3의 보기 구성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보기를 추가하거나 기존 보기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sup>48)</sup> 예를 들어, '학습' 보기를 추가하고, 「4 농사」는 「1 일하기」에 포함시키고, 「14 라디오 청취하기」와 「15 TV 시청하기」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적용할 수 있다.

48) 통계청이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행동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행동을 대분류 9개, 중분류 45개, 소분류 153개로 분류한다. 대분류는 1. 개인유지, 2. 일, 3. 학습, 4. 가정관리,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6.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7. 교제 및 참여활동, 8. 문화 및 여가활동, 9.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19).

## &lt; 요약 및 제언 &gt;

- 문6-3에서 문6-2에 기술한 활동에 대응되는 보기가 없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한 사례가 있고 반면, 일부 보기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보기 구성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기 추가 및 통합 등 재구성 방안 모색 필요해 보임

**다. 문6-4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문6-4는 문6-2에서 기술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는지 조사하며, 함께한 사람으로 혼자, 배우자, 친구 등 8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2-13>). 이 문항은 1개 선택을 명시한 문6-2와 달리 응답 가능한 보기의 수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1차 인지면접에서 함께한 사람으로 보기 2개를 선택하거나(참가자 3), 복수응답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었다(참가자 18). 복수응답이 필요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㉔ 배우자」와 「㉕ 어린 자녀 혹은 손주」를 모두 선택해야 하나 「㉖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와 같이 활동을 함께한 사람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표에 복수응답이 가능함을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보기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㉓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보기에서 「(18세 이상)」 문구는 한국의 민법상 성인 연령인 「(만 19세 이상)」으로 정정해야 한다. 「㉖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는 부모, 형제자매 및 친척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활용 측면에서 함께한 사람의 유형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부모」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보기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49)</sup>

## &lt; 요약 및 제언 &gt;

- 복수응답이 필요한 사례 확인 → 조사표에 복수응답 가능함을 표시
- 「㉓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한국의 성인 기준 연령(만 19세) 표시
- 「㉖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부모」를 분리, 독립적인 보기로 조사 고려

49)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행동을 「함께한 사람」을 9개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부모」와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은 분리되어 있다. 9개 보기는, 1. 혼자, 2. 배우자, 3. 만 10세 미만 (손)자녀, 4. 만 10세 이상 (손)자녀, 5. 부모(배우자 쪽 포함), 6. 형제자매, 기타 가족, 9. 기타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개인 관련 사항

### 가. 문D-5 동거 가족원/자녀 수

문D-5는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수와 그 중 자녀 수를 개방형 방식으로 조사한다. 자녀 수는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로 구분하여 질문하므로, 가족원 수와 함께 총 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4>).

D-5	동거하는 가족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그중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가족원 수: _____명			(2) 성인 자녀 수: _____명
			(3) 미성년 자녀 수: _____명

<그림 2-14> D-5 동거 가족원/자녀 수

1차 인지면접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였다(<표 2-13>).<sup>50)</sup> 첫째, ‘(1) 가족원 수’ 문항에서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응답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수를 기입한 사례가 나타났다(참가자 1, 5, 7, 11, 19). 둘째, ‘(2) 성인 자녀 수’ 문항에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포함한 전체 성인 자녀 수를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3, 11). 세 번째 오류는 응답자와 부모가 같이 사는 가족 형태에서 ‘(2) 성인 자녀 수’ 문항에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2, 12, 16).<sup>51)</sup> 이 참가자들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 참가자는 이러한 오류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나, 응답과정에서 본인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녀 수를 적어야 할지 고민했음을 밝히며 조사기준의 애매함을 언급했다(참가자 14).

(참가자 14: 자녀 수 응답기준 애매함 언급)

면접원: 자녀 수는 따로 안 적어 주셨네요.

참가자: 이게 **저랑 동생을 적어야 되는 건가, 제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동생이랑 저를 쓰라고 하면 두 명이죠.

면접원: 네. 선생님과 동생 분을 자녀 수로 적어야 할지 애매하셨던 거네요.

참가자: 네.

1차 인지면접을 통해 파악한 오류들은 공통적으로 응답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동 가능성 있는 응답기준을 응답자가 헛갈리지 않도록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같이 사는 전체

50) 이 밖에 ‘(2) 성인 자녀 수’ 문항에 같이 사는 조카 수를 표시하는 착오를 범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3).

51)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응답자와 함께 ‘자녀 수’ 집계에 포함하였다(참가자 2, 12).

가족원 수 조사, 따로 사는 자녀 제외, 응답자 본인의 자녀 수 조사 등의 응답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과 세부문항 명칭을 보완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2-13> 문D-5 응답내용 및 오류사항

참가자	동거 가족원 구성		(1) 가족원 수		(2) 성인 자녀 수		(3) 미성년 자녀 수
	1대	2대	응답	오류 사항	응답	오류 사항	응답
1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3	4명	본인 누락	-		3명
2	모	본인, 성인 형제자매 1	3명		2명	본인 포함	0명
3	본인	성인 자녀 1	2명		2명	비동거 1명	-
4	본인, 배우자	성인 자녀 2, 미성년 자녀 1	5명		2명		1명
5	본인	-	0명	본인 누락	0명		0명
6	부, 모	본인	3명		-		-
7	본인	-	0명	본인 누락	0명		0명
8	본인	미성년 자녀 2	3명		-		2명
9	본인	성인 자녀 2	3명		2명		-
10	모	본인	2명		-		-
11	본인, 배우자	-	1명	본인 누락	2명	비동거 2명	-
12	부, 모	본인, 성인 형제자매 1	4명		2명	본인 포함	0명
13	본인, 배우자	성인 조카 1	3명		1명	조카 1명	0명
14	모	본인, 성인 형제자매 1	3명		-		-
15	본인, 배우자	성인 자녀 1	2명	본인 누락	1명		-
16	부, 모	본인	3명		1명	본인 포함	-
17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	3명		-		1명
18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	3명		-		1명
19	본인, 배우자	성인 자녀 1	2명	본인 누락	1명		-

< 요약 및 제언 >

- 응답기준 혼동에 따른 오류 발생 사례 확인함
  - 혼동 가능성 있는 응답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 응답자 본인 포함 같이 사는 전체 가족원 수 조사, 따로 사는 자녀 제외, 응답자 본인의 자녀 수 조사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과 세부문항 명칭을 보완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㉔ 없다」 보기는 차별 경험 대신 직장이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미취업자이나 작년에는 직장을 다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 질문에서는 이러한 응답자의 차별 경험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요약 및 제언 >

- 문D-7(경제활동상태) 기준 취업자가 문D-12에서는 직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례 있음  
→ 문D-12에서 응답대상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직장이 있으신 분만)’ 조건 삭제 고려
- 문D-12를 문D-7 기준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다. 문D-15 가계 부채비율

문D-15는 가계 총 수입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진 보기를 통해 조사한다. 질문 마지막 부분에 금융기관 대출, 사채, 카드빚, 할부 등 부채의 종류가 안내되어 있다(<그림 2-16>).

**D-15** 귀하의 가계 총 수입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주시십시오(금융기관 대출, 사채, 카드빚, 할부 등)

① 0%(부채 없음)	② 10% 미만	
③ 10 ~ 20% 미만	④ 20 ~ 30% 미만	⑤ 30% 이상

<그림 2-16> 문D-15 가계 부채비율

1차 인지면접 결과 질문에 제시된 ‘총 수입’과 ‘부채’ 용어를 참가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고, 일부는 수입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입’은 ‘월 소득(수입, 급여)’으로 이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간이 상이한 ‘연 소득’(참가자 14)을 떠올린 사례도 있었다. 반면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예. 집, 차)’(참가자 8, 15, 17)을 생각한 사례가 있었다. ‘부채’는 ‘대출(예. 집, 학자금) 원금’, ‘대출 월 상환액’, ‘대출 이자’, ‘할부(예. 카드, 자동차)’가 언급되었다. 이에 반해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총 지출액’, ‘카드 지출액’, ‘아파트 임대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6/19명).<sup>54)</sup>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현재 문D-15에서 ‘총 수입’과 ‘부채’ 용어를 응답자 간 동일하고

54) 참가자 6, 9, 10, 12, 14, 18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과 부채의 포괄범위를 조사목적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응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응답해야 하는 ‘가계’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1인 가구인 참가자가 부모가 있는 ‘본가’의 부채비율을 응답하거나(참가자 7), 3인 가구에서 참가자 본인의 수입과 부채에 한정하여 응답한 사례를 확인했다(참가자 13).

- < 요약 및 제언 >
- ‘총 수입’과 ‘부채’ 용어를 응답자 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함  
→ ‘총 수입’과 ‘부채’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포괄범위에 관한 지침 제시 필요해 보임
  - ‘가계’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사례 있음(예. 1인 가구 → 본가 기준 응답)

**라. 문D-6 교육정도 및 문D-22 키와 몸무게**

문D-6은 정규 교육정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응답자 본인과 부모(아버지, 어머니) 각각 응답해야 한다(<그림 2-17>). 문D-22는 응답자의 키와 몸무게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그림 2-18>).

**D-6**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본인	학교	졸업여부	아버지	학교	졸업여부	어머니	학교	졸업여부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 받았음</li> <li>① 초등학교</li> <li>② 중학교</li> <li>③ 고등학교</li> <li>④ 대학교(교) (4년제 미만)</li> <li>⑤ 대학교(4년제 이상)</li> <li>⑥ 대학원 석사 과정</li> <li>⑦ 대학원 박사 과정</li> <li>⑧ 모름</li> </ul>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졸업</li> <li>② 재학</li> <li>③ 수료</li> <li>④ 휴학</li> <li>⑤ 중퇴</li> </ul> </div>
---	---	---

<그림 2-17> 문D-6 교육정도(본인, 부모)

D-22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키_____ Cm	몸무게 _____ Kg

<그림 2-18> 문D-22 키와 몸무게

1차 인지면접에서는 문D-6에서 부모의 교육정도, 문D-22의 키와 몸무게 조사에 관해 행복조사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이 문항들을 직면했을 때 당황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문D-6 참가자 1, 문D-22 참가자 1, 5, 15, 17, 18).

(참가자 1: 부모 교육정도 및 키/몸무게 조사 의문)

참가자: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만족도 조사인데, 여기 뭐 **학력이라든지, 또 키... 이런 것들 관련이 있나요?** 키도 물어보고 해서.

면접원: 의문이 드셨어요?

참가자: 네. 또 뭐, **부모님의 어떤 교육정도**, 뭐 이런 것들을 물어 보니까, 음... 이게 요즘에는 뭐 개인 정보라고 해야 되나? 자기 꺼 이 외의 그런 것들을 잘 수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참가자 18: 키/몸무게 조사 의문)

참가자: 근데 이런 거에 이렇게 **키와 몸무게도 체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면접원: 네... 좀 어떠셨어요? 처음 보시고?

참가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 제 3 장

### 2차 인지면접

#### 제1절 연구방법

##### 1. 조사표 구성

2차 인지면접은 1차 인지면접 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제공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수정안을 검토하였다. 1차 인지면접 후 조사표 초안에 대한 응답특성과 제언사항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과 공유하였고, 해당 연구진은 1차 인지면접 결과와 전문가 회의 등을 반영하여 조사표를 수정하고 최종안을 제공하였다.<sup>55)</sup>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의 조사문항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는 조사대상이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로 변화됨에 따라 가구 대표자가 응답하는 가구일반사항 부문이 신설되었다.<sup>56)</sup> 둘째, 조사표 부문 수는 7개로 동일하나, 부문 명칭과 구성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구일반사항 부문이 추가되고, 이전 정서 및 삶의 의미 부문은 삶의 의미 측정 문항이 행복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정서로 변경되었고, 분야별 만족도 부문은 전체가 삶의 만족도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셋째, 조사문항은 121개에서 175개로 문항 수가 증가하였다. 행복의 결정요인 영역<sup>57)</sup>, 그 중에서도 사회심리적 변인 부문을 중심으로 매트릭스 디자인 형태의 신규 문항들이 여러 개 도입되고 기존 문항에는 세부문항이 추가되었다. 일부 문항

55)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이 최종 수정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2차 인지면접과 동 시기에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하였다.

56)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서 가구일반사항 부문이 신설되면서, 이전 조사표 개인 관련 사항 부문의 일부 문항들(성별, 출생연월,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택유형)은 가구일반사항으로 이동되었다.

57) 조사표에서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영역으로, 사회심리적 변인, 일상재구성, 개인 관련 사항, 가구일반사항 부문을 의미한다.

은 삭제되었고<sup>58)</sup>, 이 밖에 문항의 일부 표현이 변경되거나, 보기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개별 문항별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2차 인지면접 결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표 3-1>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구성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1)</sup>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대비 변경사항
SQ. 가구일반 사항	SQ1 가구원 현황 -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연월,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택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가구 형태	10개	신규
A. 행복	A1 전반적인 행복도		
	A2 삶의 의미	3개	부문 이동 세부문항 표현 변경
	A3 삶의 평가	5개	부문 이동
B. 정서	B1 정서 경험(즐거움, 차분함 등)	10개	세부문항 부문 이동
	B2 행복 경험		부문 이동
	B3 미소 또는 웃음 빈도		
C. 삶의 만족도	C1 캔트릴 사다리		
	C2 5년 전 삶의 만족도		
	C3 5년 후 삶의 만족도		
	C4 가족생활 만족도		부문 이동
	C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부문 이동
	C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부문 이동
	C7 분야별 만족도	9개	부문 이동
	C7-1~8 생활수준, 건강 등 만족도	8개	세부문항 삭제 및 추가
C7-9 직업 만족도	1개	질문 일부 삭제 보기 추가	
D. 사회심리적 변인	D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11개	세부문항 추가 세부문항 표현 변경
	D2 집단 신뢰	6개	세부문항 추가
	D3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활동	7개	신규

58)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행복 부문의 문1-2(하는 일의 가치), 삶의 만족도 부문의 문2-2(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부문의 문4-4 '(4) 성취한 것'과 '(6) 지역 공동체'가 삭제되었다. 개인 관련 사항은 문D-5(동거 가족원/자녀 수), 문D-11(작업환경), 문D-13(만 14~18세 가정 경제적 수준), 문D-15(가계 부채비율), 문D-16(경제적 어려움 경험), 문D-19(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문D-22(키와 몸무게), 문D-23(주관적인 체형 인식) 문항이 삭제되었다.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1)</sup>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대비 변경사항	
	D4 사회단체 활동	11개	신규	
	D5 지역의 생활여건 만족도	7개	신규	
	D6 일반 신뢰	3개	세부문항 이동 및 추가	
	D7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2개	문항 세분화	
	D8 사회적 관계망	3개		
	D9 자원봉사활동 경험			
	D10 기부 경험			
	D11 성격	11개	세부문항 추가 척도 변경(10점→5점)	
	D12 혼자/함께 있는 시간	2개		
	D13 좋아서 만나는/필요·의무 시간	2개		
	D14 자율성 및 통제감		신규	
	D15 사회 불평등 인식	6개	세부문항 표현 변경	
	D16 스트레스 인식	14개	신규	
	E. 일상 재구성	E1 기상/취침 시간	2개	
		E2 중요한 일(개방형)		신규
		E3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2개	문항 세분화
E4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응답기준 명시 보기 재구성	
E5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응답기준 명시	
E6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7개	응답기준 명시 척도 변경(3점→11점)	
E7 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신규	
E8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신규	
E9 다음으로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7개	신규	
DQ. 개인 관련 사항	DQ1 교육정도(본인, 부, 모)			
	DQ2 경제활동상태			
	DQ3 직업			
	DQ4 근로시간		신규	
	DQ5 취업자 외 주된 활동상태			
	DQ6 종사상 지위			
	DQ7 임금근로자 종류			
	DQ8 직장 내 차별 경험		질문 일부 삭제 조사대상 확대 보기 세분화	

부문	문항	세부문항 수 <sup>1)</sup>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대비 변경사항
	DQ9 직장 내 차별 종류		신규
	DQ10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DQ11 가구의 적정 생활비		신규
	DQ12 건강 평가		신규
	DQ13 만성질환		보기 세분화
	DQ14 장애		
	DQ15 정치성향		신규

주: 1) 해당 문항은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부문항 수를 표시하였다.

## 2. 참가자

2차 인지면접 참가자는 1차 인지면접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통계청 홈페이지, 지역 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 생활정보신문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으며, 공고에는 모집대상(만 20세 이상 성인), 면접기간 및 방법, 참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2차 인지면접은 총 15명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9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5명, 30~40대 6명, 50대 이상이 4명이었다. 참가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7명이고, 8명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6명, 배우자 있음 8명, 별거 1명이었다. 참가자 구성과 세부적인 특성은 <표 3-2>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2차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전체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혼인상태	
		남	여	20대	30~40대	5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미혼	유배우 <sup>1)</sup>
참가자 수	15	6	9	5	6	4	7	8	6	9

주: 1) 별거 1명 포함

<표 3-3> 2차 인지면접 참가자 세부 특성

번호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1	여	26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미혼
2	남	27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미혼
3	여	49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4	여	2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5	남	41	대학교(4년제 이상)	중퇴	유배우
6	여	36	대학(교) (4년제 미만)	졸업	유배우
7	남	22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8	여	52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9	여	57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10	여	50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11	남	32	고등학교	졸업	미혼
12	여	34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13	남	41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14	남	22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15	여	51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별거

### 3. 수행과정

2차 인지면접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통계개발원 조사표연구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1차 인지면접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참가자가 조사표연구센터에 도착하면 목적과 진행과정을 간단히 안내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가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sup>59)</sup>,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 면접원이 참가자와 면담하는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원은 프로빙 지침을 토대로 면담 중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응답과정과 응답내용을 상세히 묻고 참가자의 답변을 기록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조사표 작성과 면담을 포함한 인지면접 전체 수행과정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화(녹음 포함)되었다.

59) 조사표는 일상재구성 부문 문E2의 조사대상시간에 따라 ‘아침’, ‘정오’, ‘저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1번 참가자는 ‘아침’, 2번 참가자는 ‘정오’, 3번 참가자는 ‘저녁’ 그리고 4번 참가자는 다시 ‘아침’의 순서로 각 참가자에게 상이한 조사표 유형을 제시하였다.

#### 4. 프로빙 지침

2차 인지면접에 사용한 문항별 프로빙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2차 인지면접은 1차 인지면접 후 변경된 사항 검토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신규 및 수정 문항을 중심으로 프로빙 질문을 마련하였다. 프로빙 지침은 질문과 보기, 표현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을 도출하였으며, 응답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등을 탐색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2차 인지면접용 프로빙 지침

부문	문항	프로빙 질문
SQ. 가구일반 사항	SQ1 가구원 현황	○ 실제 가구원 현황 확인 - 가구원 수, 가구주와의 관계 등
A. 행복	A1 전반적인 행복도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A2 삶의 의미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A2-1~3 이해 및 응답과정 -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하는 일' 표현 이해
	A3 삶의 평가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B. 정서	B1 정서 경험(즐거움, 차분함 등)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C. 삶의 만족도	C1 캔트릴 사다리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C7 분야별 만족도	
	C7-1~8 생활수준, 건강 등 만족도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C7-4, 5, 8 이해 및 응답과정
	C7-9 직업 만족도	○ 「99 무직」 응답 이유
D. 사회심리적 변인	D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D2 집단 신뢰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D2-1, 3, 5, 6 이해 및 응답과정
	D3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활동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D4 사회단체 활동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D5 지역의 생활여건 만족도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D5-1~7 이해 및 응답과정
	D6 일반 신뢰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D6-3 이해 및 응답과정 - 도움 주려는 대상 인식
	D7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 D7-1과 D7-2 구분 기준
	D11 성격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부문	문항	프로빙 질문
	D14 자율성 및 통제감	○ 질문이해 및 응답과정
	D15 사회 불평등 인식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 D15-4, 5, 6 이해 및 응답과정
	D16 스트레스 인식	○ 응답과정에서 든 생각(애매함 등)
E. 일상 재구성	E1 기상/취침 시간	○ 기상/취침 시간 확인
	E2 중요한 일(개방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조사대상시간('아침', '정오', '저녁') 내 일 여부
	E3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 선정 기준
	E4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E3-1 활동 관련 보기 여부
	E5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E3-1 활동 관련 보기 여부
	E6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 문E3-1 활동에 대한 응답 여부
	E7 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E3-2 활동 관련 보기 여부
	E8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문E3-2 활동 관련 보기 여부
	E9 다음으로 중요한 일 당시 정서 경험	○ 문E3-2 활동에 대한 응답 여부
DQ. 개인 관련 사항	DQ2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상태 확인
	DQ4 근로시간	○ 근로시간 확인 - 1주일 기준, 초과근로시간 포함 여부
	DQ8 직장 내 차별 경험	○ 해당 보기 선택 이유 ○ 무응답 이유
	DQ9 직장 내 차별 종류	○ 해당 보기 선택 이유 ○ 무응답 이유
	DQ11 가구의 적정 생활비	○ 가구의 적정 생활비 산출과정
	DQ13 만성질환	○ ('㉠ 비해당' 외) 만성질환 종류
마무리	-	○ 궁금한 사항, 하고 싶은 말

## 제2절 연구결과

### 1. 행복

#### 가. 문A2 삶의 의미

문A2는 삶의 의미에 관해 측정하는 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세부문항은 자신이 평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문A2-1),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지(문A2-2),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문A2-3)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1>). 1차 인지면접 후 문A2-1은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의미 있다고 느낀다.’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로 문장이 변경되었다.<sup>60)</sup>

A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 안 함					매우 동의함				
1)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3-1> 문A2 삶의 의미

2차 인지면접에서는 1차 인지면접 후 변경된 문A2-1과 관련된 문A2-2 2개 문항을 함께 검토하였다. 2차 인지면접 참가자에게 두 문항에 대한 응답 소감을 질문한 결과, 문A2-1의 애매함(참가자 11)이나 어려움(참가자 12)을 언급한 사례가 한 명씩 있었고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다. 애매함과 어려움을 언급한 참가자들은 문A2-1의 문장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애매하고(참가자 11), 질문 내용이 평소 생각해보지 않은 지점이라 어려웠다고 밝혔다(참가자 12).

(참가자 11: 문A2-1 애매)

참가자: 음. 1번이 좀 약간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가지고 그냥 애매,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60) 이 밖에도 1차 인지면접 후 문A2는 기존 정서 및 삶의 의미 부문에서 행복 부문으로 위치가 이동되었고,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의 행복 부문에서 문A2 외에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문항(기존 문 1-2)은 삭제되었다.

(참가자 12: 문A2-1 어려움)

참가자: 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1번이 삶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살면서 전혀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질문을 보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전체 참가자가 문A2-1의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문A2-2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각각 무엇을 생각했는지 살펴보았다(<표 3-5>). 취업, 재학 등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현재 직업, 학교생활, 가족생활, 집안일, 자녀양육, 운동 등 다양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차 인지면접 결과와 유사하나, 과거 직업 포함 여부를 애매하게 생각하거나 과거 직업에 대해 응답한 사례가 없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는 문A2-1에서 이전의 ‘인생에서’라는 표현이 ‘평소’로 변경되면서 현재 시점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두 문항을 유사한 대상을 생각하고 응답한 참가자는 12명이고, 면담 과정에서 다르다고 밝힌 경우는 3명이었다(참가자 1, 11, 12). 후자의 사례는 문A2-2는 문A2-1에서 고려한 일을 일부 제외하거나(참가자 1, 11), 두 문항 간 서로 다른 일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2).

<표 3-5> 문A2-1과 문A2-2 응답 고려대상

참가자	참가자 상황		문A2-1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A2-2 내가 하는 일
	경제활동	재학		
3	o		현재 직업	현재 직업
8	o		현재 직업, 인간관계, 가족 돌봄	현재 직업, 인간관계
10	o		현재 직업, 집안일, 인간관계	현재 직업, 결정 필요한 일
11	o		현재 직업, 일상생활	현재 직업
13	o		현재 직업, 가족생활	현재 직업, 가족생활
15	o		현재 직업, 자녀양육	현재 직업, 자녀양육, 아파트 구입
14	o(아르바이트)	o	대학교 공부, 운동, 아르바이트	대학교 공부, 운동, 아르바이트
9	o		가족 돌봄	가족 돌봄
5	o		가족생활	가족생활
2	o(아르바이트)	o	대학원 생활(공부, 조교)	대학원 생활(공부, 조교)
7	o(아르바이트)	o	대학교 공부, 운동, 사람 만남	대학교 공부, 운동
1		o	대학원 공부, 일상생활	대학원 공부
4			취미활동(글쓰기, 피아노, 그림 등)	취미활동(글쓰기, 피아노, 그림 등)
6			일상생활(자녀양육 포함)	자녀양육
12			자녀양육	집안일

2차 인지면접에서는 문A2-1의 전체 문장 중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변경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생에서’를 ‘평소’로 변경한 것이 과거 시점의 일을 제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가 하는 일들’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의 변화는 참가자가 생각하는 일의 내용과 아울러 문A2-1과 문A2-2에서 서로 다른 일을 고려할 가능성에서 전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A2-1과 문A2-2 두 문항의 외현을 동일하고 간결한 문구(‘평소 내가 하는 일’)로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A2-1은 ‘나는 평소 내가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낀다.’, 문A2-2는 ‘나는 대체로 평소 내가 하는 일들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로 제시할 수 있다.

#### < 요약 및 제언 >

- 문A2-1의 변경사항 중 ‘평소’는 과거의 일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의 변화는 전후 차이가 없어 보임
- 문A2-1과 문A2-2를 동일하고 간결한 문구(‘평소 내가 하는 일’)로 제시 고려  
(문A2-1) ‘나는 평소 내가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낀다.’  
(문A2-2) ‘나는 대체로 평소 내가 하는 일들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 2. 삶의 만족도

### 가. 문C7 분야별 만족도

문C7은 자신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분야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2>). 총 8개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분야는 ‘생활수준, 건강, 대인 관계,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미래의 안정성,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동네 환경’이다. 1차 인지면접 후 기존의 ‘성취한 것’과 ‘지역공동체’ 분야는 삭제되었고, ‘공동체 소속감’이 추가되었다.<sup>61)</sup>

61) 이 밖에도 1차 인지면접 후 문C7은 기존 별도의 분야별 만족도 부문에서 삶의 만족도 부문으로 위치가 이동되었고, 분야별 만족도 부문은 삭제되었다.

**C7** 귀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만족 정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대인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안전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공동체 소속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미래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동네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3-2> 문C7 분야별 만족도

2차 인지면접 참가자에게 문C7을 응답한 전반적인 소감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참가자 15명 중 문C7-4 안전감은 6명<sup>62)</sup>, 문C7-5 공동체 소속감은 1명(참가자 8) 그리고 문C7-8 동네 환경은 2명(참가자 4, 11)<sup>63)</sup>이 개념을 이해하기 애매하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1차 인지면접에 이어 애매함이 다수 언급된 문C7-4 안전감과 1차 인지면접 후 추가된 문C7-5 공동체 소속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 문C7-4 안전감

문C7-4 안전감을 응답할 때 애매함을 느낀 참가자는 총 6명으로, 이 조사에서 안전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등 개념 이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한 참가자는 안전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막연히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참가자 10). 안전감을 각각 경제적 안정(참가자 1)과 전반적 삶의 안정(참가자 9)으로 이해한 경우는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비교해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진술하였다. 일부는 안전감의 의미를 잘 몰라서 대신 ‘안정감’으로 생각하였고(참가자 3, 6), 이때 문C7-6의 미래의 안정성과 구분이 모호함을 언급하며 여기서는 현재의 안정감으로 응답했음을 밝힌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6). 이 밖에 문C7-6 미래의 안정성과의 구분이 모호함을 제기한 참가자는 안전감을 미래의 안정성과 동일한 맥락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3).

한편 이 문항에서 안전감은 범죄, 폭력,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참가자 2, 10, 11, 14), 위험 시 도움(참가자 7, 8), 전반적인 삶의 안정(참가자 6, 9), 가정의 안

62) 참가자 1, 3, 6, 9, 10, 13

63) 문C7-8 동네 환경에 대해 애매함을 언급함 참가자는 ‘동네’의 범위가 의문이거나(참가자 4) 무엇인지 막연히 모르겠다고 하였다(참가자 11).

정(참가자 15), 고용안정(참가자 12), 경제적 안정(참가자 1, 2, 10) 등으로 참가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문C7-4 안전감 개념 이해 및 애매한 이유

참가자	응답	개념 이해	애매	
			애매	애매한 이유
10	8	불안하지 않음, 위험 요소* 없음 * 채무, 사회적 불안(예. 코로나) 사회적 폭력성	애매	안전감 의미 모르겠음
1	8	경제적 안전감(본인, 부모 경제력)	애매	(헛갈림) 경제적 안전 vs 신체적 안전
9	9	내부적 안전감(삶 무탈)	애매	(헛갈림) 내부적 안전 vs 외부적 안전 (주변 범죄 등 위험)
3	5	안전함 느낌 <sup>1)</sup>	애매	안전감 의미 모르겠음 - 안정감과 비슷하나 약간 달라 보임 안정감으로 생각하고 응답
6	4	현재의 안정감(사고 없이 무탈) - 문C7-6 미래의 안정성과 시점만 차이	애매	안전감 의미 모르겠음 안정감으로 생각하고 응답 문C7-6 미래의 안정성과 구분 모호
13	4	미래의 안정성(경제적 측면) - 문C7-6 미래의 안정성과 동일	애매	문C7-6 미래의 안정성과 구분 모호
12	2	직업에 대한 불안		
15	8	자녀 취학, 취업으로 마음 편해지고 안정됨		
2	10	외부에서 범죄피해 불안 못 느낌, 경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 없음		
14	10	치안, 교통사고 위험		
11	6	위험(예. 일할 때)		
7	7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전(자기 대처, 주변 도움)할 수 있는지 생각		
8	8	사고 시 119가 빨리 오고 병원갈 수 있는지 생각		
4	3	- <sup>2)</sup>		
5	5	- <sup>2)</sup>		

주: 1) 참가자 3은 안전감 개념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했다.

2) 참가자 4와 참가자 5는 안전감 개념 이해에 대한 프로빙을 실시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문C7-4 안전감에 대해 응답자는 개념의 애매함을 느끼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문항을 대상으로 한 1차 인지면접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쉽고 정확한 응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문항이 특정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안전감 조사가 목적이라면 응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요약 및 제언 >

- (문C7-4 안전감) 개념의 애매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참가자별로 다양하게 이해함  
→ 조사목적이 전반적인 안전감이라면 응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문C7-5 공동체 소속감

문C7-5 공동체 소속감은 1차 인지면접 후 추가된 문항이다.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 후 삭제된 ‘지역공동체’와는 조사대상인 공동체를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차 인지면접 결과 이 문항에서 애매함을 느낀 참가자는 1명으로, 사회, 지역, 직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 중 어느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다(참가자 8). 이 참가자는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8: 문C7-5 공동체 소속감 애매)

참가자: 어, 글썬요. 5번에서 제가 조금 할 때 공동체 소속감은 좀 자세하게 나열이 안 돼서. **공동체면은 그냥 사회도 있을 수 있고,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여기서 5번이 조금 좀 명확하게 가르쳐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응답했는지 살펴보았다(<표 3-7>). 공동체는 취업자는 주로 직장, 재학 중이면 주로 학교를 떠올리고 이에 대한 소속감의 만족도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족, 친척, 지인 및 친구, 기타 활동하는 단체를 생각한 사례가 있다. 기타 활동하는 단체로 제시된 구체적인 예는 학생기자단, 지역사회봉사활동, 마을모임 등이다.

한편 현재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부재 상태에 대해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6, 12). 해당 참가자들은 현재 미취업자이고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상태로, 직장과 기타 활동 단체(동호회, 아파트 반상회)가 없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로 만족도를 낮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6, 12 → 만족도 1, 0).

(참가자 6: 문C7-5 공동체 소속감 부재의 만족도)

참가자: 저희 가족 외에는 딱히 소속감이라는 거를 지금 따로 이제, 지금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 외에는 소속감이라는 거를 더 느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직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거의 없는, 없다고 생각해서...

(참가자 12: 문C7-5 공동체 소속감 부재의 만족도)

**참가자:** 아무래도 여러 명이 모이는, 제가 아파트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뭐지? 모이는 반상회? 반상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제가 지금 참여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소속감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느꼈었는데 현재는 뭐 집에만 있으니까.

<표 3-7> 문C7-5 공동체 소속감 조사대상

참가자	응답	참가자 상황		공동체 소속감 조사대상			
		경제활동	재학	직장	학교	가족/친척/지인/친구	기타 단체
1	7		○				학생기자단
2	6	○(아르바이트)	○		○	가족	
3	5	○		○			
4	5				○		
5	6	○		○			
6	1			○			동호회
7	9	○(아르바이트)	○		○		
8	7	○		○			
9	5	○					지역사회봉사활동, 마을모임
10	8	○		○			활동하는 단체
11	6	○		○			
12	0			○			아파트 반상회
13	3	○		○		친척, 지인/친구	
14	8	○(아르바이트)	○	○	○		
15	8	○		○			

< 요약 및 제언 >

- (문C7-5 공동체 소속감) 취업자는 주로 직장, 재학 중이면 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의 만족도를 응답하고, 이 밖에 가족, 친척, 지인 및 친구, 기타 활동하는 단체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재 소속 공동체 부재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로 응답한 사례 있음

나. 문C7-9 직업 만족도

문C7-9는 직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3>). 직업이 없는 사람은 1차 인지면접 후 추가된 「㉟ 무직」 보기를 선택하면 된다.<sup>64)65)</sup>

**C7-9** 귀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무직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㉑

<그림 3-3> 문C7-9 직업 만족도

2차 인지면접 결과<sup>66)</sup> 문C7-9는 「㉑ 무직」을 선택하거나(참가자 7) 선택을 고민한(참가자 14) 반면 조사표 후반부에 위치한 개인 관련 사항 부문의 취업자 조사 문항(문DQ2)은 경제활동(일)<sup>67)</sup> 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sup>68)</sup> 이 두 참가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문C7-9에서 조사하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는 응답자에 따라 일시적·부가적으로 하는 일로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은 조사에서는 문DQ2의 경제활동(일)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러한 경제활동(일)은 1회성 일, 무급가족 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직업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문C7-9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응답자에 따라 직업의 범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㉑ 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C7-9에서 조사하려는 직업의 정의를 조사표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다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㉑ 무직」으로 잘못 응답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C7-9는 「㉑ 무직」을 선택한 반면 문DQ2(경제활동상태)에서는 일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 있음, 조사에서 직업은 문DQ2 같은 광의적 개념으로 일반 인식과 괴리
- 문C7-9에 직업의 정의를 조사표에 명시 고려

64)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조사표는 질문 서두에 제시된 ‘직업이 있는 분께만 여쭙습니다.’라는 조건에 따라 직업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65) 이 밖에도 1차 인지면접 후 문C7-9는 기존 별도의 분야별 만족도 부문에서 삶의 만족도 부문으로 위치가 이동되었고, 분야별 만족도 부문은 삭제되었다.

66) 2차 인지면접 전체 참가자 15명 중 5명은 문C7-9에서 「㉑ 무직」 보기를 선택하였다(참가자 1, 4, 6, 7, 12).

67)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한 일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한 일로 정의한다.

68) 참가자 7과 같은 사례는 1차 인지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바 있다. 1차 인지면접에서는 문C7-9를 응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 5. 사회심리적 변인

### 가. 문D2 집단 신뢰

문D2는 제시된 6개 집단 각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4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4>). 6개 집단은 ‘가족(친척 포함), 이웃,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의 사람’이 제시되어 있다. 2차 인지면 접용 조사표에서는 3개의 세부문항(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의 사람)이 추가되었다.

D2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항목	신뢰 정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친척 포함)	①	②	③	④
2) 이웃	①	②	③	④
3)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①	②	③	④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5)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①	②	③	④
6) 다른 국적의 사람	①	②	③	④

<그림 3-4> 문D2 집단 신뢰

#### ■ 문D2-1 가족(친척 포함)

문D2-1(가족(친척 포함))은 2차 인지면접 결과 참가자 15명 중 6명<sup>69)</sup>은 친척(이모, 고모, 삼촌, 사촌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로 구성된 협의의 가족을 평가하고 친척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사례는 ‘(친척 포함)’ 지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응답자는 ‘가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항에서 친척을 가족에 포함하여 하나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참가자 1, 4). 해당 참가자들은 가족과 친척은 신뢰도가 명백히 다른 집단으로, 친척 포함 여부가 응답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1: ‘가족(친척 포함)’ 애매)

참가자: 어... 다른 거는 괜찮은데 **가족에 친척이 포함돼 있어서**, 가족은 매우 신뢰하는데 사실 친척은 약간 신뢰하는 쪽을 체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척 포함이라서 그냥 약간 신뢰한다고 체크한 것 같아요.

(참가자 4: ‘가족(친척 포함)’ 애매)

69) 참가자 1, 4, 5, 9, 10, 13

참가자: **가족에 친척 포함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중략) 친척이 포함돼 있어서 약간 신뢰한다로 그랬던 거 같은데...

문D2-1은 가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친척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족은 협의의 개념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친척은 분리하여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각 집단의 본질적인 신뢰도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 및 제언 >

- (문D2-1 가족(친척 포함)) 친척을 포함하지 않고 응답하거나 친척 포함을 애매하게 생각한 사례 있음  
→ 가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친척 포함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문D2-5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문D2-5(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는 참가자의 종교 유무 등에 따라 신뢰도 평가 집단의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3명)은 본인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전체(참가자 1), 타종교인 전체와 종교 없는 사람(참가자 10), 특정 타종교인(참가자 14)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종교가 없는 사람(12명)은 종교가 있는 사람 전체(9명) 또는 특정 종교인(참가자 4, 7, 12)을 근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 애매함을 언급한 참가자는 3명이었다(참가자 11, 14, 15). 이 중 2명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이 모호하다 언급했고(참가자 11, 15), 처음에 이단을 떠올린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11). 나머지 한 참가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문D2-4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속한다는 생각에서 이 문항을 애매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4).

(참가자 11: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애매)

참가자: 네. 이거 약간 교회에 그런 거 빼고 **신천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비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다른 종교가 그냥 그건가요? 그냥 교회나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 불교 이런 거?

(참가자 15: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애매)

참가자: 뭐 5번이나 6번. **제가 종교를 갖지를 않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표시를 했거든요. 4번도 그렇고요. 4, 5, 6.

(참가자 14: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애매)

참가자: 5번이 그냥 조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굳이 안 들어가도 약간 그냥 낯선 사람에 속하는 것 같은데...**

문D2-5는 참가자에 따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범위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인의 종교 유무와 종교의 종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조사목적과 대상을 조정하여 종교를 믿는 사람 전체의 신뢰도를 평가하거나, 종교인을 선별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D2-5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범위를 다양하게 인식  
→ 문항의 조사 신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나. 문D5 지역의 생활여건 만족도**

문D5는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 추가된 신규 문항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7개 생활여건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5>). 7개 생활여건으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경제, 환경, 여가’가 제시되어 있다.

D5 귀하는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의 생활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만족 정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함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2) 안전	①	②	③	④	⑤
3)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관계 및 사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5) 경제	①	②	③	④	⑤
6) 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여가	①	②	③	④	⑤

<그림 3-5> 문D5 지역의 생활여건 만족도

■ 문D5-1 건강

2차 인지면접에서는 문D5-1(건강)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 대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2, 13, 14, 15).<sup>70)</sup> 이러한 사례는 응답 기준을 혼동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전 문C7-2(건강)의 자신의 삶에서 건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유사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 참가자는 지역의 건강여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문항의 애매함을 밝혔다(참가자 14).

70) 참가자 12는 다른 세부분항인 문D5-5(경제)와 문D5-7(여가)에서도 거주지역의 여건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14: 문D5-1 건강 애매)

참가자: 거주하는, 약간 거주하는 지역이 건강, 이게 나의 건강이랑 약간 좀 헛갈리는 그게 있었어요.

면접원: 응답은 그러면 거주지역으로 해주셨나요?

참가자: 음. 건강만... 건강만 나 자신으로 했던 거 같아요.

면접원: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참가자: 거주하는 지역에 건강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서 지역이 건강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 사례 외 참가자들은 지역의 건강 여건으로 병원, 공원, 운동시설, 자연환경(산, 공기 등), 청결, 공장 등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의 여건에 대한 조사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질문에서 해당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여 강조하거나, 세부분항을 ‘거주지역의 건강 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요약 및 제언 >
- (문D5-1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로 응답한 사례 있음
    - 거주지역의 여건에 대한 조사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1. 질문의 해당 문구를 진하게 표시
      2. 세부분항을 ‘거주지역의 건강 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

### 다. 문D6 일반 신뢰

문D6은 신뢰에 관한 3개의 세부분항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6>).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서는 문D6-2와 문D6-3이 추가되고, 문D6-1은 문D171)에서 분리되어 3개의 세부분항으로 이루어진 문D6이 구성되었다.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 3-6> 문D6 일반 신뢰

71) 이 문항은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서는 문5-1에 해당한다.

■ 문D6-3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2차 인지면접에서는 문D6-3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문장이해에 관해 논의가 집중되었고, 검토내용은 3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이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참가자 1). 해당 참가자는 도움 제공 대상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인지 헷갈린다고 하였고, 최종적인 응답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인지면접 참가자 전체를 보면 15명 중 12명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머지 3명은 나에게로 생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참가자 3, 6, 8). 문D6-3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응답자의 애매함과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가자 1: 도움 주려는 대상 애매)

참가자: 전 **3번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뭔가 질문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약간 2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세 항목이 내 상황이란 연결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세계 사람들의 생각,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한다거나 도움을 주는 의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지가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참가자 3, 6). 해당 참가자들은 도움을 주려는 상황이 전반적인, 어려운, 위험한, 금전적인 위기 등 어떤 상태인지 헷갈린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참가자는 도움 제공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반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으로 국한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8, 12, 13).

< 요약 및 제언 >

- (문D6-3)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애매함  
 도움 제공 대상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인지, ‘나’인지 헷갈림  
 →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

■ 문D6-1~3 기타

2차 인지면접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문D6 각 세부분항의 문장을 간결하고 자연

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D6-1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로 제시할 수 있다. 문D6-2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와 문D6-3의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각 문장의 시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으로 통일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D6-1~3) 문D6-2와 문D6-3 세부문항의 문장을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수정 필요
  - (문D6-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로 제시
  - (문D6-2, 3) 각 문장의 시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으로 통일

**라. 문D7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문D7은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1차 인지면접 후 비대면 관계를 고려하여 2개의 문항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문D7-1의 ‘온라인(채팅,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으로만 만나는 친구’와 문D7-2의 ‘오프라인(물리적으로 직접)으로도 만나는 친구’로 구분한다(<그림 3-7>).

**D7 평소 귀하가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1) 온라인(채팅,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으로만 만나는 친구	( ) 명
(2) 오프라인(물리적으로 직접)으로도 만나는 친구	( ) 명

<그림 3-7> 문D7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 문D7-1 온라인(채팅,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으로만 만나는 친구

2차 인지면접 결과 문D7-1(온라인)은 전화, 카카오톡, SNS 등으로 자주 연락하는 친구 수를 응답하였으나 참가자에 따라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참가자들은 주로 비대면 관계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최근에도 자주는 아니나 직접 만나는 친구도 포함했다. 반면 일부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만나지 않는 친구로 제한해서 생각하였다(참가자 1, 7).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응답자에 따라 현재 문D7-1의 ‘온라인(채팅,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으로만 만나는 친구’에 대한 해석과 그 결과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D7-1이 오프라인 만남은 일체 배제한 순수 온라인 관계에 국한되는지, 온라인으로 자주 연락하는 동시에 빈도수는 적으나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lt; 요약 및 제언 &gt;

- (문D7-1) 참가자의 해석에 따라 포함하는 친구 수 범위에 차이 발생  
→ 문D7-1이 순수 온라인 관계에 국한되는지, 온라인과 동시에 빈도수는 적으나 오프라인 만남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필요

### 마. 문D14 자율성 및 통제감

문D14는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 추가된 신규 문항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8>). 10점 척도의 양극단에는 각각 「① 전혀 할 수 없음」과 「⑩ 완벽하게 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D14** 귀하는 귀하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할 수 없음					완벽하게 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3-8> 문D14 자율성 및 통제감

2차 인지면접에서 문D14는 서로 다른 개념인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과 통제감을 함께 묻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8/15명).<sup>72)</sup> 이 참가자들은 두 개념의 점수가 상이하여 충돌하면 한 개념의 점수를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최종 응답은 두 가지 중 낮은 점수가 되거나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8: 문D14 두 개념 고려)

참가자: 음, 8번, 8번으로 제가 했는데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끊고,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부분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아까 앞전에 말한 것처럼 제 혼자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완벽한 건 아니고 9번 정도로 줄 수 있었는데 이걸 같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한 8번 정도로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9번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9번까지는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제시하는 부분이 두 가지니 그냥 8번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참가자 7: 문D14 두 개념 고려)

참가자: 어, 이것도 아까 초반에 비슷한 문항이 있었는데 그 A2 3번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

72) 참가자 1, 3, 4, 7, 8, 10, 12, 14

**것인지 자유롭다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선택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면접원: 여기 8번에 체크해 주셨는데요. 앞에는 9번 체크해 주셨어요. 혹시 차이가 있으신가요?

참가자: 앞에는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은 제가 이제 내리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는데 통제하는 부분은 제가, 제가 원하는 부분대로 갈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낮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문D14의 두 개념 중 하나인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은 동 조사표 이전 행복 부분의 문A2-3의 측정 내용과 유사하다고 선제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3, 7, 8, 12). 문A2-3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를 11점 척도로 조사한다.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문D14는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과 통제감 질문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 개념만 제시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은 문A2-3의 측정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통제감에 대한 조사로 제한할 수 있다. 통제감 단독 조사를 가정하면, 질문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귀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이 문항은 1부터 10의 숫자로 구성된 10점 척도로 조사하는데, 조사표 전반적인 일관성 차원에서 11점 척도(0-10)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D14는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과 통제감 개념이 복합된 질문으로, 두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응답한 사례 있음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은 문A2-3의 측정 내용과 유사함 인식 사례 있음  
→ 문D14는 통제감에 대한 단독 조사로 국한시킬 필요
- (기타) 10점 척도(1-10)를 조사표 전반적으로 사용 중인 11점 척도(0-10)로 대체

**바. 문D15 사회 불평등 인식**

문D15는 우리 사회에서 제시된 6개 항목이 각각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3-9>). 6개 항목은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권력, 성(性) 별’과 같다. 마지막 ‘성(性) 별’ 항목은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의 ‘남녀 간’에서 표현이 변경된 것이다.

**D15**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항목	불평등		보통		평등
	①	②	③	④	
1) 교육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취업기회	①	②	③	④	⑤
3)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4) 소득과 재산	①	②	③	④	⑤
5) 권력	①	②	③	④	⑤
6) 성(性) 별	①	②	③	④	⑤

<그림 3-9> 문D15 사회 불평등 인식

■ 문D15-4~6 소득과 재산, 권력, 성(性) 별

2차 인지면접 결과 문D15-5의 ‘권력’ 항목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참가자 1, 8, 11, 14). 이 중 한 참가자는 권력이 어느 정도 평등한지 불평등한지 잘 몰라서 평가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였다(참가자 1). 다른 참가자들은 평가 대상으로 제시된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력이 평등하다 또는 불평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8, 11, 14).

(참가자 1: 문D15-5 권력 애매)

참가자: 음. 다른 거는 괜찮고 권력은 제가 정치권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권력은 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중략) 권력은 그냥 언론에서 비쳐지는 내용으로만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참가자 8: 문D15-5 권력 애매)

참가자: 어렵지 않았는데 그 중에 5번. **권력이라 그래서 그거 할 때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좀 의미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랑 법의 집행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단은 점수를 이쪽으로 이렇게 줬어요. (중략) 그 법의 집행하고 권력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구분을 굳이 지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은 좀 광범위하게 여기다 표시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세세하게 옆에다가 내용을 좀 더 5번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가자 11: 문D15-5 권력 애매)

참가자: 뭐 **권력도 뭔지 잘 몰라서 애매한 거 같아요.**

(참가자 14: 문D15-5 권력 애매)

참가자: 음. 권력. **권력이 평등하다 불평등하다가 조금 애매했던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중략)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평등한지 불평등한지를 잘 몰라서 그냥 보통으로 했던 거 같아요.

문D15-5(권력)에서 평가 대상에 대한 이해 문제가 표출된 후자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문D15-1~3에 제시된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과 비교하면, 문D15-5의 ‘권력’은 조사에서 의도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의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D15-5(권력)에서 평가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2차 인지면접에서 애매함을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로 권력 분배나 남용을 생각하고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D15-5(권력)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문D15-4(소득과 재산)와 문D15-6(성(性) 별)도 평가 대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현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차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소득과 재산’은 분배, ‘성(性) 별’은 차별을 주로 생각하고 응답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D15-4-6) 문D15-5의 ‘권력’ 항목이 애매하다는 의견 있음
  - ‘권력’은 조사에서 의도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의 평가 대상이 불분명
  - 문D15-5(권력)의 평가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 필요
  - 같은 맥락으로 문D15-4(소득과 재산)와 문D15-6(성(性) 별)도 직관적인 표현 모색

■ 문D15-1~6 기타

2차 인지면접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완성도 차원에서 질문과 척도의 라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D15의 질문<sup>73)</sup>은 동 조사표 내 다른 문항들과 동일하게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5점 척도의 양극단에 제시된 라벨의 표현을 「① 불평등」, 「⑤ 평등」에서 「① 매우 불평등하다」, 「⑤ 매우 평등하다」로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D15-3의 ‘법의 집행’을 ‘법 집행’으로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다.

73) 문D15의 질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문D15-1~6) 질문과 척도의 라벨 등을 보완해 완성도 제고 요구
  - (질문) 질문은 의문형으로 제시
  - (척도) 척도 양극단 라벨은 「① 매우 불평등하다, 「⑤ 매우 평등하다」로 변경
  - (문D15-3) ‘법의 집행’을 ‘법 집행’으로 제시

## 6. 일상재구성

일상재구성 부문은 총 9개 문항(문E1~9)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E1은 어제 기상/취침 시간을 묻고, 문E2에서는 어제 특정 시간에 한 중요한 일을 모두 적은 후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두 가지를 문E3에 다시 기입하는 구조이다(<그림 3-10 >).<sup>74)</sup>

**E1** 지금부터는 귀하가 어제 하신 일들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1) 귀하가 어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_____ 시 _____ 분
2) 귀하가 어제 밤에 잠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_____ 시 _____ 분

**E2** 귀하가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까지 하신 일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간략하게 모두 적어주십시오(예, 친구와 외식, 가족과 대화 등).


**E3** 귀하가 위에 작성하신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까지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두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 먼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빈 칸에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해주시고.	_____
2)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빈 칸에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해주시고.	_____

<그림 3-10> 문E1~3 기상/취침 시간, 중요한 일(개방형),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74) 특정 시간은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과 같은 3개 유형으로, 응답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시간이 상이한 조사표를 제공한다. <그림 3-10>은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까지 조사하는 아침 유형에 해당한다.

문E4부터 문E6은 문E3-1에 적은 가장 중요한 일(1순위)에 관한 문항들로, 가장 중요한 일에 대응되는 행동을 보기에서 선택하고 그 일을 함께한 사람, 당시 정서 경험을 조사한다(<그림 3-11>). 이어서 문E7~9는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2순위)에 관해 문E4~6과 동일한 구성으로 조사한다.

**E4** [E3-1 응답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 한가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수면                                | ② 음식섭취                                     |
| ③ 건강관리(요양, 병원 방문 등)                 | ④ 위생/외모 관리                                 |
|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 ⑥ 학습(학교 활동)                                |
| ⑦ 학교활동 외 학습 활동(학원 수강, 온라인 수강, 자습 등) | ⑧ 가정 내 활동(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과금 처리 등) |
| ⑨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 ⑩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
| ⑪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 ⑫ 가족과 대화                                   |
| 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 ⑭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
| ⑮ 자원봉사                              | ⑯ 개인적 친교 활동                                |
| ⑰ 사회적 참여 활동(단체활동, 종교활동, 관혼상제 등)     | ⑱ 문화/관광 활동                                 |
| ⑲ 미디어 시청/활용                         | ⑳ 스포츠/레저 활동                                |
| ㉑ 게임                                | ㉒ 휴식                                       |
| ㉓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 ㉔ 이동                                       |

**E5** [E3-1 응답에 대해] 귀하는 위의 활동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습니까?(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 포함)

- |               |                      |                    |
|---------------|----------------------|--------------------|
| ① 혼자          | ② 배우자                |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
| 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 |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 ⑥ 친구               |
| ⑦ 직장 동료       | ⑧ 그 외 다른 사람          |                    |

**E6** [E3-1 응답에 대해] 위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의 감정을 각각 얼마나 느꼈습니까?

항목	전혀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느꼈다			
1) 근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바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짜증 혹은 분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3-11> 문E4~6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함께한 사람, 정서 경험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조사표와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중요한 일을 기존 하나에서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문E3은 가장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중요한 일까지 적도록 구분되었고, 다음으로 중요한 일의 세부 내용(행동, 함께한 사람, 정서 경험)에 관한 3개 문항(문

E7~9)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둘째, 어제 특정 시간에 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조사(문E3)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모두 적는 문항(E2)이 새로 도입되었다. 셋째,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에 관해 조사하는 문E4~9의 각 질문 서두에 응답기준(‘[E3-1/2 응답에 대해]’)이 명시되었다. 넷째, 중요한 일을 폐쇄형으로 조사하는 문E4와 문E7의 행동 분류 보기가 23개에서 24개로 재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 경험 조사 문항(문E6, 문E9)의 척도가 3점(1-3)에서 11점(0-10)으로 변경되고, 우측 극단의 라벨이 「매우 많이 느꼈다」에서 「매우 느꼈다」로 바뀌었다.

### 가. 문E2~9

2차 인지면접 결과 문E2(중요한 일(개방형))에서 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이 아니라 어제 하루 전체에서 중요한 일을 적는 사례가 발생했다(참가자 1, 2, 7, 10)(<표 3-8>). 이와 같이 선행 문항인 문E2에서 조사대상시간을 잘못 인식한 경우 단일 문항 오류로 종결되지 않고 이후 문항들(문E3~9)의 응답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 7, 10).<sup>75)</sup> 해당 참가자들은 <표 >에 음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과 관련 문항들(문E7~9)(참가자 7, 10) 또는 일부 문항(문E5 함께한 사람)(참가자 1)은 조사대상시간 외에 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E2와 문E3이 발단이 되어 이후 문항(문E4~9) 전반에 걸쳐 어제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는 1차 인지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시간이 제시된 문E2와 문E3에서 응답자가 해당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괄호([ ])를 삭제하고 굵은 글씨로 진하게 또는 다른 색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정오’ 대신 ‘낮 12시’로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2차 인지면접에서 한 참가자가 정오를 밤 12시로 생각하고 아침 기상 시간부터 밤 12시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한 것에 착안하였다(참가자 7).

75) 참가자 2는 문E3에 기입한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조사대상시간에 한 일이어서 문E2의 오류가 이후 문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표 3-8> 문E2~9 어제 하루 기준 응답 사례

참가자	문E2 유형 <sup>1)</sup>	문E2 중요한 일	문E3-1 가장 중요한 일(개방형)	문E4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문E5 함께한 사람	문E6 정서 경험
			문E3-2 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문E7 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문E8 함께한 사람	문E9 정서 경험
1	아침	이성친구와 통화 운동 강아지 산책	운동: 매일 하는 것	스포츠/레저 활동	친구	
			강아지 산책: 야외배변훈련으로 오전에 꼭 해야 함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혼자	
2	정오	수업참여 실험수업 진행 친구들과 식사 여자 친구와의 통화	실험수업을 잘 진행하려고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함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그 외 다른 사람	
			실험수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서칭 및 생각 정리	학습(학교 활동)	혼자	
7	아침	학교수업 과제 친구와 약속	학교 대면수업에 지각하지 않고 참여	학습(학교 활동)	친구	
			저번 주부터 잡아놓은 친구와의 약속 지키기	음식섭취	친구	오 후 한 일
10	아침	아침 식사준비 오전 집안일(청소, 빨래) 오후 친구 만나서 점심 산책, 취미생활	식사준비: 일요일이다 보니 가족이 다같이 식사를 하니까 신경을 씀	가정 내 활동 <sup>2)</sup>	혼자	
			취미생활: 피아노 연습, 책읽기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혼자	오 후 한 일

주: 1) 조사대상 특정 시간에 따라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 유형으로 구분한다.

2) 「㉔ 가정 내 활동(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과금 처리 등)」 보기를 의미한다.

< 요약 및 제언 >

- 문E2~9에서 어제 하루 전체의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가 발생함  
→ 조사대상시간이 제시된 문E2와 문E3에서 해당 사항을 강조할 필요 있음
  1. 대괄호([ ]) 삭제, 2. 굵은 글씨로 진하게 또는 다른 색으로 제시,
  3. '정오'를 '낮 12시'로 쉽게 표현

나. 문E4~9

문E4~9에서는 조사방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11, 12, 15)(<표 3-9>). 해당 참가자들은 문E1부터 문E3까지는 순조롭게 응답하였으나<sup>76)</sup>, 이후 문항들(문E4~9)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문E4~6은 문E3-1의 가장 중요

76) 참가자 11은 문E3-2(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는 무응답하였는데, 조사대상시간 동안 문E3-1에 기

한 일, 문E7~9는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에 관해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참가자들은 <표 3-9>에 음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문E3에 기입한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과 이후 문E4~9 응답내용이 대응되지 않았다.

<표 3-9> 문E4~9와 문E3 비대응 응답자 기입내용

참가자	문E2 유형 <sup>1)</sup>	문E2 중요한 일	문E3-1 가장 중요한 일(개방형)	문E4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문E5 함께한 사람	문E6 정서 경험
			문E3-2 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문E7 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문E8 함께한 사람	문E9 정서 경험
11	정오	친구들과 점심	친구들과 점심, 점심에 친구들과 밥을 먹음	휴식	친구	일상
			(무응답)	수면	혼자	일상
12	저녁	애기 빨래 삶는 것 애기 장난감 소독 저녁밥 차리기	애기 빨래 삶는 거	위생/외모 관리 가족 돌보기 (아이 돌봄)	배우자 가족 <sup>2)</sup>	육아
			애기장난감 소독	수면 직업 관련 일 <sup>3)</sup>	혼자	육아
15	저녁	화장품 1+1 행사 품목 구매 중학교 친구 만나 저녁식사 우리 딸 아들에게 화장품 선물	우리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면서 이렇게 좋아하니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건강해야겠다	직업 관련 일 <sup>3)</sup> 휴식	성인이 된 자녀 (18세 이상)	일상
			친구 덕분에 세종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분양신청 하고 그냥 행복하고 당첨되면 어떡하지 하며 고민했다	수면 가족과 대화	성인이 된 자녀 (18세 이상)	일상

주: 1) 조사대상 특정 시간에 따라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정오),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저녁) 유형으로 구분한다.

2)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의미한다.

3)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보기를 의미한다.

문E4~9와 선행 문항인 문E3과의 비대응 응답은 중요한 일을 2순위까지 조사하는 복잡한 구조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조사표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 복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 문E3 이후 문E4부터 문E9까지 번호순대로 하나씩 나열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문E3-2와 관련 문항인 문E7~9는 떨어져 있다. 1차 인지면접 후 문E4~9에서 선행 문항(문E3)과의 대응 관계를 안내하는 단서로 문E4~6과 문E7~9 각 질문 서두에 응답기준('[문E3-1 응답에 대해]', '[문E3-2 응답에 대해]')를 제시하였으나

입한 가장 중요한 일 외에 다른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구조와 안내 두 가지 측면에서 문항 간 연관성과 응답방법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선행 문항인 문E3을 고려하지 않고 문E4~9를 독립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구조 측면에서 생각하면, 문E3에서 중요한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묻지 않고 질문을 분리해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문E7~9 직전에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선행 문항과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그림 3-12>와 같이 문E3-1과 문E3-2를 좌우로 배치하고 각 아래에 관련 문항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다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문항의 좌우 배치는 문E4~9의 길이로 인해 조사표 지면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E3-1	E3-2
E4	E7
E5	E8
E6	E9

<그림 3-12> 문E3~9 좌우배치(안)

다음으로 안내 측면에서는 문E4~9에서 응답 기준이 다른 두 그룹(문E4~6, 문E7~9)별 첫 문항인 문E4와 문E7 직전에 각 그룹의 응답방법을 지시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지시문은 예를 들어 문E3과 문E4 사이에는 ‘E4부터 E6까지 질문은 E3-1에 적은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까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지시문은 선행문항과의 연관성과 문항그룹 간 상이한 응답기준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 및 제언 >

- 문E4~9에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함에 따라, 선행 문항인 문E3에 기입한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과 이후 문E4~9 응답 내용이 대응되지 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항 간 연관성과 응답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로 문E3을 고려하지 않고 문E4~9를 독립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 문항그룹(문E4~6, 문E7~9)별 응답방법을 별도 지시문으로 제시

다. 문E1 기상/취침 시간

문E1은 어제 한 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24시간 제로 기입하도록 한다(<그림 3-13>). 2차 인지면접에서는 12시간 기준으로 취침시간을 응답하는 사례가 있었으며(참가자 8, 9, 14), 이는 동일한 문항으로 검토한 1차 인지면접에서도 발생했던 사항이다(1차 2/19명). 현재 문E1에는 시간을 적는 기입란 앞에 ‘(24시)’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응답자가 24시간제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안내를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와 같이 서술형으로 제공하거나, 24시간제로 변환한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1** 지금부터는 귀하가 어제 하신 일들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1) 귀하가 어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_____시 _____분
2) 귀하가 어제 밤에 잠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_____시 _____분

<그림 3-13> 문E1 기상/취침 시간

< 요약 및 제언 >

- 12시간 기준으로 취침시간을 응답하는 사례가 있음  
 → ‘(24시)’ 안내를 보완하여 24시간제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1.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와 같이 서술형으로 제공
  2. 24시간제 변환 예시 제시

**라. 문E4/7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문E4는 문E3-1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응되는 활동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면, 음식섭취,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등 24개의 대표적인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그림 3-14>). 문E7은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에 관해 문E4와 동일한 구성으로 조사한다. 문E4와 문E7은 1차 인지면접 후 행동분류 보기가 23개에서 24개로 전면 재구성되었다.

**E4** [E3-1 응답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 한가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수면                                | ② 음식섭취                                     |
| ③ 건강관리(요양, 병원 방문 등)                 | ④ 위생/외모 관리                                 |
|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 ⑥ 학습(학교 활동)                                |
| ⑦ 학교활동 외 학습 활동(학원 수강, 온라인 수강, 자습 등) | ⑧ 가정 내 활동(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기금 처리 등) |
| ⑨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 ⑩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
| ⑪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 ⑫ 가족과 대화                                   |
| 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 ⑭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
| ⑮ 자원봉사                              | ⑯ 개인적 친교 활동                                |
| ⑰ 사회적 참여 활동(단체활동, 종교활동, 관혼상제 등)     | ⑰ 문화/관광 활동                                 |
| ⑱ 미디어 시청/활용                         | ⑳ 스포츠/레저 활동                                |
| ㉑ 게임                                | ㉑ 휴식                                       |
| ㉒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 ㉒ 이동                                       |

<그림 3-14> 문E4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2차 인지면접 결과 문E4 또는 문E7에서 선택한 보기 행동이 앞서 문E3에서 기술한 중요한 일과 대응이 어색한 사례가 있었다(7/15명)<sup>77)</sup>(<표 3-10>). 한 참가자는 문E3은 가장 중요한 일과 다음으로 중요한 일로 실험수업 관련 활동으로 동일하게 적고, 문E4는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문E7은 「⑥ 학습(학교 활동)」을 다르게 선택했다(참가자 2). 실험수업 진행과 준비가 대학원 조교로서 하는 수입 있는 일이므로 문E4와 다른 문E7의 응답(「⑥ 학습(학교 활동)」)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E3과 문E4/7의 응답을 비교해서 산책과 「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참가자 5), 당첨조회와 「⑫ 가족과 대화」(참가자 6), 친구와 약속 지키기와 「② 음식섭취」(참가자 7), 가족과의 식사와 「⑫ 가족과 대화」(참가자 8), 남편과 대화와 「⑭ 가족원 간호/도움/교육」(참가자 9), 마지막으로 운동과 「⑬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참가자 14)이 대응이 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문E3과 문E4/7 대응이 어색한 응답자 기입내용

참가자	문E3-1/2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문E4/7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문E5/8 함께한 사람 <sup>1)</sup>
2	(문E3-1) 실험수업을 잘 진행하려고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함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그 외 다른 사람
	(문E3-2) 실험수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서칭 및 생각 정리	학습(학교 활동)	혼자
5	(문E3-2) 매일하는 가족과 식사 후 저녁 산책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배우자 → (정정) 배우자, 어린 자녀 혹은 손주
6	(문E3-1) 새벽에 퇴근한 신랑과 새로 분양한 아파트 당첨조회를 했는데 되기는커녕 예비당첨 순위도 너무 한참 뒤라 당황했다	가족과 대화	배우자
7	(문E3-2) 저번 주부터 잡아놓은 친구와의 약속 지키기	음식섭취	친구
8	(문E3-2) 가족과의 식사	가족과 대화	가족 <sup>2)</sup> → (정정) 배우자,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9	(문E3-1) 남편과 대화(전날 산책 중 손목을 다친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함)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배우자
14	(문E3-1) 친구들과 운동을 했다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친구

주: 1) 문E5와 문E8의 함께한 사람에 대한 검토 결과는 바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2)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의미한다.

77) 참가자 2, 5, 6, 7, 8, 9, 14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문E4와 문E7에서 응답자 스스로 행동을 분류하는 데 정확성 면에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인지면접에서 보기 중 일부 행동이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세분화된 것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였으나 자기기입식 조사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동분류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기의 명칭이 해당 행동의 포괄범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지 검토하고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㉓ 가족 돌보기(아이 돌보기)」, 「㉔ 미디어 시청/활용」, 「㉕ 게임」 등의 명칭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혼동 가능성 있는 보기에 관한 설명을 조사표에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괄호 안에 설명이 추가된 보기가 있으나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 요약 및 제언 >

- 문E4/7에서 선택한 보기 행동이 문E3에 기술한 일과 대응이 어색한 사례가 있음  
→ 문E4/7에서 행동분류 응답의 정확성 제고 방안 필요해 보임
  1. 보기 명칭의 대표성 검토 및 대체
  2. 혼동 가능성 있는 보기에 관한 상세 설명 제시

#### 마. 문E5/8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문E5는 문E3-1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는지 조사하며, 함께한 사람으로 혼자, 배우자, 친구 등 7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3-15>). 문E8은 문E3-2의 다음으로 중요한 일에 관해 문E5와 동일한 구성으로 조사한다.

**E5** [E3-1 응답에 대해] 귀하는 위의 활동을 하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습니까?(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 포함)

- |               |                      |                    |
|---------------|----------------------|--------------------|
| ① 혼자          | ② 배우자                |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
| 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 |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 ⑥ 친구               |
| ⑦ 직장 동료       | ⑧ 그 외 다른 사람          |                    |

#### <그림 3-15> 문E5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2차 인지면접에서는 함께한 사람으로 보기 2개를 선택하거나(참가자 12), 복수응답이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였다(참가자 5, 8). 복수응답이 필요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기 하나를 누락(「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하거나(참가자 5), 「② 배우자」와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8). 한편 후자의 사례(참가자 8)에서는 가족 보기를 혼동한 것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를 포함하는 의미로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을 선택한 다른 참가자에서도 나타났다(참가자 2)(<표 3-11>).

<표 3-11> 문E5/8 응답오류 기입내용

참가자	문E3-1/2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개방형)	문E4/7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문E5/8 함께한 사람	비고
12	(문E3-1) 아기 빨래 삶는 거	위생/외모 관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배우자, 가족 <sup>1)</sup>	복수응답
5	(문E3-2) 매일하는 가족과 식사 후 저녁 산책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배우자 → (정정) 배우자, 어린 자녀 혹은 손주	복수응답 필요
8	(문E3-2) 가족과의 식사	가족과 대화	가족 <sup>1)</sup> → (정정) 배우자,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복수응답 필요 가족 보기 혼동
2	(문E3-2) 집안일(월요일 출근 전 미루었던 청소 등 마무리)	가정 내 활동	가족 <sup>1)</sup> → (정정)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가족 보기 혼동

주: 1)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동일한 문항으로 검토한 1차 인지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다(1차 2/19명). 현재 문E5와 문E8은 1개 선택을 명시한 다른 문항(문E4, 문E7)과 달리 복수응답 여부에 관한 안내가 없는데, 함께한 사람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표에 복수응답 허용을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가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모, 형제, 기타 가족’과 같이 포괄하는 사람의 범위를 나열하고 ‘가족’을 뒤에 제시하여 시각적인 주의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복수응답하거나 필요한 사례 확인 → 조사표에 복수응답 허용 표시
-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보기를 배우자, 자녀 포함으로 혼동 확인 → 「⑤ 부모, 형제, 기타 가족」과 같이 포괄범위 나열





트에 대해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보기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4)<sup>81)</sup>(<표 3-12>). 해당 참가자는 아르바이트 또한 직장일이므로 차별 경험 여부를 판단하여 「① 예」 또는 「② 아니오」로 응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아르바이트 등의 포함을 제한하고 응답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2차 인지면접에서는 응답자의 부주의에 따른 몇 가지 응답사례가 나타났다(<표 3-12>). 지난 1년이 조사대상기간이나 현재 무직이어서 조사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응답한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6). 이 참가자는 응답 중에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보기도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타 사례로는,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 1년 이전 직장에서 받은 차별 경험에 관해 응답하거나(참가자 12), 현재 미취업 상태여서 학교를 직장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응답한 것이 있었다(참가자 1).

<표 3-12> 문DQ8 응답오류

참가자	문DQ2 경제활동상태	문DQ8 직장 내 차별 경험	비고
4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 (정정) 예 또는 아니오 <sup>1)</sup>	직장 경험으로 아르바이트 누락
6	아니오	무응답 → (정정)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현재 무직이어서 조사대상으로 생각 안함 3번 보기 못 봄
12	아니오	예 → (정정)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1년 이전 직장 기준 응답
1	아니오	아니오 → (정정)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현재 무직이어서 학교를 직장으로 간주하고 응답

주: 1) 참가자 4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차별 경험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항은 직장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누락하지 않고, 새로 추가된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보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자는 질문 하단에 직장에서 제외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한다는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직장 경험 여부를 선행 조사 후 유경험자를 대상으로만 다시 차별 경험 유무를 묻는 2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구성이 복잡해지므로 현재의 3개 보기(「① 예」,

없음」은 2명, 나머지 1명은 무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1) 반면 아르바이트를 직장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차별 경험 여부를 「① 예」 또는 「② 아니오」로 오류 없이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2, 7, 14).

「② 아니오」,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를 일렬로 제시하여 동일한 위계로 보이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요약 및 제언 >

- 직장의 포괄범위에 아르바이트를 누락한 사례 있음  
→ 직장에서 제외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한다는 지침 제공
-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보기를 인식 못하고 잘못 응답한 사례 있음  
→ 보기 3개(「① 예」, 「② 아니오」,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를 일렬로 제시

다. 문DQ9 직장 내 차별 종류

문DQ9는 2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 추가된 신규 문항으로 직전의 문DQ8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조사한다(<그림 3-19>). 6개 보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① 여성/남성」, 「② 학력(학벌)」, 「③ 연령」, 「④ 장애인」, 「⑤ 출신지역」, 「⑥ 기타(적을 것:\_\_\_\_\_)」로 구성되어 있다.

**DQ9**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 |         |          |                    |
|---------|----------|--------------------|
| ① 여성/남성 | ② 학력(학벌) | ③ 연령               |
| ④ 장애인   | ⑤ 출신지역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그림 3-19> 문DQ9 직장 내 차별 종류

2차 인지면접에서 이 문항 조사대상자는 선행 문항인 문DQ8에서 「① 예」로 응답한 3명으로, 이들은 각각 「⑥ 기타(신분)」(참가자 3), 「⑥ 기타(임금)」(참가자 5), 「② 학력(학벌)」(참가자 12)을 선택하였다. 이때 참가자 5가 「⑥ 기타」 사유로 적은 ‘임금’은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 조사대상자가 아닌데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구직과정에서 받은 차별 경험을 생각하고 「③ 연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8). 질문 서두에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비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방지하고 문장의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보기를 보다 일관성 있게 ‘성별, 학력/학벌, 연령, 장애, 출신지역, 기타’로 제시할 수 있다.

## &lt; 요약 및 제언 &gt;

- 조사대상자가 아닌 참가자가 응답한 사례 있음  
→ 질문 서두에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에서’라는 문구 추가

## 라. 문DQ13 만성질환

문DQ13은 만성질환에 관한 문항으로 유무 조사<sup>82)</sup>에서 2차 인지면접에서는 만성질환이 있으면 투병 투약 기간에 따라 구분된 3개 보기 중 선택하도록 변경되었다(<그림 3-20>). 보기는 총 4개이며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 DQ13 귀하는 만성질환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비해당                       | ①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
|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 하고 있다 | ③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

## &lt;그림 3-20&gt; 문DQ13 만성질환

2차 인지면접 참가자 15명 중 13명은 「① 비해당」이고, 나머지 2명은 「③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를 선택하였다(참가자 2, 4). 후자의 경우 탈모, 아토피, 비염 등의 질환을 생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sup>83)</sup>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① 비해당」 보기를 일관성 차원에서 번호와 표현을 수정하여 「① 없다」로 제시하고, 나머지 보기 3개의 번호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lt; 요약 및 제언 &gt;

-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 대비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 삭제됨 → 지침 제시
- (보기 변경) 「① 비해당」을 「① 없다」로, 나머지 보기 3개는 번호 변경

82)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조사표에서는 보기가 「① 있음」, 「② 없음」으로 제시되었다.

83) 1차 인지면접용 조사표의 동일 문항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및 뇌졸중, 암, 천식 및 만성폐쇄성 질환 등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 4 장

### 종합논의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측정하고, 행복 수준에 기여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기획한 신규 조사이다. 이에 새로 설계된 조사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과정과 이해도를 확인하고, 질문 또는 보기의 구성이나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인지면접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진행절차는 동일하나 검토한 조사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1차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조사표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초안으로, 2020년 하반기 조사를 준비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1차 인지면접에 참가한 사람은 총 19명이었으며, 조사표 초안 전반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과정과 이해도 등을 파악하였다. 2차 인지면접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차 인지면접 결과와 전문가 회의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조사표를 검토하였으며, 이 조사표는 2차 인지면접과 동 시기에 실시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사용된 것이다. 2차 인지면접에 참가한 사람은 총 15명이었으며, 1차 인지면접 후 추가 및 변경된 문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응답특성과 제언사항을 도출하였다.

1차 인지면접과 2차 인지면접 결과 도출된 검토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각각 <표 4-1>, <표 4-2>와 같다. 검토의견은 조사표 부문과 조사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되, 1차 인지면접에 관한 <표 4-1>에서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 및 삶의 의미 부문은 번호 순에 관계없이 관련된 문항을 묶어서 함께 기술하였다. 아울러 <표 4-1>에는 1차 인지면접 검토의견과 함께 해당 의견이 2차 인지면접에 사용한 조사표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하고, <표 4-2>에는 2차 인지면접에서 검토의견을 도출한 문항이 1차 인지면접에서 사용한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다.

<표 4-1> 1차 인지면접 검토의견 요약

문항	검토의견	2차용 조사표 반영
I. 행복, II. 삶의 만족도, III. 정서 및 삶의 의미		
1-1 전반적인 행복도 2-1 캔트릴 사다리 2-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1-1, 문2-1, 문2-2) 참가자 19명 중 9명은 질문 2개 이상 유사하게 인식함</li> <li>- 문2-1은 캔트릴 사다리를 '경제적인 수준'의 협의적 개념으로 인식한 사례 있음</li> </ul>	부분 반영 - (삭제) 문2-2
1-2 하는 일의 가치 3-3 삶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1-2, 문3-3 (1), (2)) 원문이 동일한 '하는 일' 표현에 대해 애매함 느끼고, 동일 응답자가 각 문항별로 생각한 일이 다를 가능성 파악</li> <li>· (문1-2, 문3-3 (1)) 문1-2의 '가치 있다'와 문3-3 (1)의 '의미 있다'는 원문은 동일하나 조사표 표현은 다르고, 이 점이 응답자의 해석 차이를 유발하고 응답에 영향을 미친 사례 있음</li> <li>→ 각 문항이 원문의 의미를 구현하는지 전체적인 검토 필요</li> </ul>	반영 - (삭제) 문1-2 - (표현 변경) 문3-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1-2, 문3-3 (1)) 유사 질문의 중복 조사 필요성 검토</li> </ul>	반영 - (삭제) 문1-2
1-3 행복 경험 3-1 정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1-3(정도)과 문3-1 (9)(빈도) 각 척도를 참가자 19명 중 11명은 개념 차이 인식, 문3-1의 「⑩ 온종일 느꼈다」 이해를 어려워한 사례 있으며, 전반적인 응답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li> <li>→ 정서 경험 측정 척도가 어떤 기준으로 정도와 빈도로 구분되는지 검토하고, 향후 정서 경험 측정 방식의 일원화를 고려할 수 있음</li> </ul>	미반영
IV. 분야별 만족도		
4-4 분야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지역공동체'와 '(5) 안전감'과 같은 문4-4의 세부 문항에서 개념의 애매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참가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li> <li>→ 각 세부문항에서 OECD(2013) 권고 원문의 목적과 개념을 구현하면서 쉽고 정확한 응답 유도 방안이 필요해 보임</li> </ul>	부분 반영 - (삭제) '(3) 성취한 것', '(6) 지역공동체' 문항 - (추가) '공동체 소속감' 문항
4-5 직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4-5는 무응답하고, 문D-7(경제활동상태)에서는 일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 있음</li> <li>→ 문4-5에 직업의 정의 명시 고려</li> </ul>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일' 개념을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함</li> <li>→ 조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 개념을 응답자 간 포괄범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li> </ul>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없는 응답자는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임</li> </ul>	반영 - (삭제) '직업이 있는 분께만 여쭙습니다.' 문구 - (추가) "⑨ 무직"

V. 사회심리적 변인		
5-1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6), (11) 등 일부 세부문항은 조사 이유 의문, 조사내용 민감하여 불쾌한 감정 유발 가능, 응답 애매 의견 있음</li> </ul>	부분 반영 - (표현 변경) (5), (6) 문항
5-5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범위에 비대면 관계(SNS, 카카오톡 등)가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사례 있음 →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응답기준을 정립하고,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li> </ul>	반영 - (문항 세분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5-6 혼자/함께 있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구분 기준이 다른 사례가 일부 있음 → (1)과 (2) 조사시간 간 구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li> </ul>	미반영
5-7 좋아서 만나는/필요·의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5-7의 응답내용이 문5-6의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사례 있음 → 문5-7은 문5-6의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조사 구조를 주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함</li> </ul>	미반영

VI. 일상 재구성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6-2-5에서 문6-2는 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기술하고 문6-3부터 문6-5는 문6-2의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함 → 문6-2~5는 연관된 문항으로 공통 응답기준(어제 조사대상 특정 시간의 중요한 일 한 가지) 준수 강조 필요</li> </ul>	반영 - 응답기준 명시
6-3 가장 중요한 일(폐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6-3에서 문6-2에 기술한 활동에 대응되는 보기가 없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한 사례가 있고 반면, 일부 보기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보기 구성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기 추가 및 통합 등 재구성 방안 모색 필요해 보임</li> </ul>	반영 - 보기 재구성
6-4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응답 필요한 사례 확인 → 조사표에 복수응답 허용 표시</li> </ul>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㉓ 성인인 된 자녀(18세 이상),’) 한국 성인 기준(만 19세) 표시</li> </ul>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㉕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부모’ 독립 보기로 조사 고려</li> </ul>	미반영

개인 관련 사항

D-5 동거 가족원/자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기준 혼동에 따른 오류 발생 사례 확인함 → 혼동 가능성 있는 응답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응답자 본인 포함 같이 사는 전체 가족원 수 조사, 따로 사는 자녀 제외, 응답자 본인의 자녀 수 조사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과 세부문항 명칭 보완 및 지침 추가</li> </ul>	반영 - 문항 삭제
D-6 교육정도 (본인, 부,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조사와의 관련성 의문, 응답 시 당황스러웠다는 의견 있음</li> </ul>	미반영

D-12 직장 내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D-7(경제활동상태) 기준 취업자가 문D-12에서는 직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례 있음 → 문D-12에 제시된 ‘직장이 있으신 분만’ 문구 삭제 고려</li> <li>문D-12를 문D-7 기준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li> </ul>	반영 - (삭제) ‘직장이 있으신 분만’  부분 반영 - (조사대상 확대) 미취업자 포함 - (보기 세분화) 차별 없음과 직장 없음 구분
D-15 가계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수입’, ‘부채’ 용어 응답자 간 다양하게 또는 잘못 이해함 → ‘총 수입’과 ‘부채’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포괄범위에 관한 지침 제시 필요해 보임</li> </ul>	반영 - 문항 삭제
D-22 키와 몸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조사와의 관련성 의문, 응답 시 당황스러웠다는 의견 있음</li> </ul>	반영 - 문항 삭제

<표 4-2> 2차 인지면접 검토의견 요약

문항	검토의견	1차 대비 변경사항
A. 행복		
A2 삶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A2-1) 변경사항 중 ‘평소’는 과거의 일 제외 작용 추정,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변화는 전후 차이가 없어 보임 → 문A2-1과 문A2-2를 동일하고 간결한 문구(‘평소 내가 하는 일’)로 제시 고려</li> </ul>	부문 이동 (표현 변경) 문 A2-1
C. 삶의 만족도		
C7 분야별 만족도		부문 이동
C7-1~8 생활수준, 건강 등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C7-4 안전감) 애매함 느끼는 사례가 있고, 다양하게 이해함 → 조사목적이 전반적인 안전감이라면 응답자의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임</li> <li>(문C7-5 공동체 소속감) 취업자는 직장, 재학 중은 학교 주로, 이 밖에 가족, 친척, 지인/친구, 기타 활동 단체 소속감 평가 - 현재 소속 공동체 부재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로 응답한 사례 있음</li> </ul>	(삭제) ‘성취한 것’, ‘지역공동체’ 문항 (추가) 문C7-5 공동체 소속감
C7-9 직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C7-9는 ‘☹ 무직’을 선택한 반면 문DQ2(경제활동상태)에서는 일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 있음 → 직업의 정의 명시 고려</li> </ul>	(삭제) ‘직업이 있는 분께만 여쭙습니다.’ 문구 (추가) ‘☹ 무직’
D. 사회심리적 변인		
D2 집단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D2-1 가족(친척 포함)) 친척을 포함하지 않고 응답하거나 친척 포함을 애매하게 생각한 사례 있음 → 가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친척 포함의 적절성 검토</li> </ul>	(추가) 문D2-3,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D2-5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포괄범위를 다양하게 인식 → 문항의 조사 신뢰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D5 지역의 생활여건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D5-1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로 응답한 사례 있음 → 거주지역의 여건에 대한 조사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1. 질문의 해당 문구를 진하게 표시 2. '거주지역의 건강 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li> </ul>	신규
D6 일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D6-3) 도움 주려는 대상이 '일반 다른 사람들'인지, '나인지 헷갈림' → 도움을 주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li> <li>▪ (문D6-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로 제시</li> <li>▪ (문D6-2, 3) 각 문장 시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으로 통일</li> </ul>	(이동) 문D6-1 (추가) 문D6-2, 3
D7 자주 어울리는 친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D7-1) 순수 온라인 친구에 국한되는지, 온라인과 동시에 빈도수는 적으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조사기준 정립 필요</li> </ul>	(문항 세분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D14 자율성 및 통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과 통제감 개념이 복합된 질문으로 인식, 두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응답한 사례 있음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은 문A2-3의 측정 내용과 유사함 인식 → 문D14는 통제감에 대한 단독 조사로 국한시킬 필요</li> <li>▪ (척도) 10점 척도(1-10)를 11점 척도(0-10)로 대체</li> </ul>	신규
D15 사회 불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D15-5 권력) '권력' 표현이 애매하다는 의견 있음 조사에서 의도한 평등/불평등 정도의 평가 대상이 불분명 → (문D15-5(권력)) 평가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li> <li>▪ (문D15-4 소득과 재산, 문D15-6 성(性) 별) 직관적인 문항명 모색</li> <li>▪ (문D15-1~6) (질문) 의문형으로 제시</li> <li>▪ (문D15-1~6) (척도) 「① 매우 불평등하다」, 「⑤ 매우 평등하다」로 변경</li> <li>▪ (문D15-3 법의 집행) '법의 집행'을 '법 집행'으로 제시</li> </ul>	(표현 변경) 문D15-6

E. 일상 재구성

E1 기상/취침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시간 기준으로 취침시간을 응답하는 사례가 있음 → '(24시)' 안내 보완해 24시간제 기준 미인식 방지 1.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같이 서술형으로 제공 2. 24시간제 변환 예시 제시</li> </ul>	
E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 하루 전체의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가 발생함 → 문E2와 문E3에서 조사대상시간 강조할 필요 있음 1. 대괄호([ ]) 삭제 2. 굵은 글씨로 진하게 또는 다른 색으로 제시 3. '정오'를 '낮 12시'로 쉽게 표현</li> </ul>	(신규) 문E2, 7~9 (문항 세분화) 문E3(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 구분) (응답기준 명시) 문E4~6

E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함에 따라, 선행 문항인 문E3에 기입한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과 이후 문E4~9 응답내용이 대응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li> <li>→ 문항 간 연관성과 응답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방안으로 문항그룹(문E4~6, 문E7~9)별 응답방법 안내 추가 제시</li> </ul>	(신규) 문E7~9 (응답기준 명시) 문E4~6
E4/7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폐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한 보기 행동이 문E3의 일과 대응이 어색한 사례가 있음</li> <li>→ 문E4/7에서 행동분류 응답의 정확성 제고 방안 필요해 보임</li> <li>1. 보기 명칭의 대표성 검토 및 대체</li> <li>2. 혼동 가능성 있는 보기에 관한 상세 설명 제시</li> </ul>	(신규) 문E7 보기 재구성 (응답기준 명시) 문E4
E5/8 가장/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함께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응답 필요한 사례 확인 → 조사표에 복수응답 허용 표시</li> <li>·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배우자, 자녀 포함으로 혼동</li> <li>→ 「⑤ 부모, 형제, 기타 가족」과 같이 포괄범위 나열</li> </ul>	(신규) 문E8 (응답기준 명시) 문E5

DQ. 개인 관련 사항

DQ2~7 경제활동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간 이동을 단순화하여 응답자 편의 도모 필요</li> <li>→ 미취업자 조사문항인 문DQ5를 문DQ2 하단에 문DQ3과 좌우로 배치 고려</li> </ul>	
DQ8 직장 내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으로 아르바이트 누락 사례 있음</li> <li>→ 직장에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지침 제공</li> <li>· 「③ 지난 1년 동안 직장 경험이 없음」 보기 미인식 사례 있음</li> <li>→ 보기 3개를 일렬로 제시</li> </ul>	(삭제) ‘(직장이 있으신 분만)’ (조사대상 확대) 미취업자 포함 (보기 세분화) 차별 없음과 직장 없음 구분
DQ9 직장 내 차별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자가 아닌 참가자가 응답한 사례 있음</li> <li>→ 질문 서두에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에서’라는 문구 추가</li> </ul>	신규
DQ13 만성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 삭제됨 → 지침 제시</li> <li>· (보기) 「⑩ 비해당」을 「① 없다」로, 나머지 보기 3개 번호 변경</li> </ul>	(보기 세분화) 유무 → 투병·투약 기간 구분

이 연구는 소규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응답과정을 탐색하는 인지면접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화 가능한 수준의 참가자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면접 참가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15건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Willis, 2005).

이 연구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를 일반 응답자 관점에서 검토한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두 차례 인지면접을 통해 조사표 초안과 실제 조사에 사용된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문제 진단-조사표 수정-응답 반응 확인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 및 보기, 척도의 구성과 표현 등 조사문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변경사항의 효과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제언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2차 인지면접에서 사용한 조사표 수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은 순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제언사항은 문항에 따라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규 조사로 2020년에는 예비조사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하여 현재 조사표 구성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한층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사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주언, 심수진, 이희길 (2012).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개발원.
- 서은국, 한준, 이화령, 최민영, 홍민성, 이채정, 허종호, 민보경 (2019).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  
**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안주엽, 이경희, 길현중,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 (2015). **일과 행복(I)**. 한국노동연구원.
-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  
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  
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동훈 (2017).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40(3), 79-104.
- 통계청 (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 하현상, 전대욱, 이기배, 윤현호, 한그루, 차진영 (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행정안전  
부.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Willis, G. B. (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Study on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for a Happiness Survey for Koreans: Cognitive Interviewing****Jueon Park, Sunhee Park, Seonmi Baek**

The 'Happiness Survey for Koreans' is designed to measure the level of happiness of Korean people in a way that can be related to other international indexes and support comprehensive analysis in relation to various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degree of happiness. As a new survey plann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 full-scale survey is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after being conducted as a pilot survey in 2020. This study serves as part of a multifaceted review process regarding questionnaires first designed for the 2020 pilot survey. It was performed to evaluate whether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s for the '2020 Happiness Survey for Koreans' are adequ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dents.

The study conducted cognitive interviewing with respondents two times using different questionnaires. The first round of cognitive interviewing was carried out to find out where respondents found the questions vague and difficult to answer and where errors arose, by looking into the response process and level of comprehension regarding the draft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2020 Happiness Survey for Koreans'. During the second round of cognitive interviewing, the questionnaire which had been mod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cognitive interviewing was used. The interviewing primarily reviewed newly-added and modified questions and sought out suggestions regarding the format and expression of the questions and response options. The 'Happiness Survey for Koreans' will be carried out as a full-fledged survey later on.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upgrading the design of the questionnaire in a more respondent-friendly manner to enhance the resulting quality of the survey.

Key Words: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Questionnaire, Cognitive interviewing

## 집필진

- 박주언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박선희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 백선미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연구보고서 2020-07

###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개발 연구: 인지면접

---

인 쇄 2021년 4월 12일  
발 행 2021년 4월 13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





통계청  
통계개발원

